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여당 최소 24명 “14일 표결 참석”... 탄핵방어선 붕괴

〈대통령〉

국민의힘의 ‘탄핵 방어선’이 사실상 무너졌다. 11일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김태호·고동진·김소희·우재준·정성국 의원 등 24명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탄핵이 아닌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주변에 “2차 탄핵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출석해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주변 의견을 들으며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대로 14일 오후 5시에 시작된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토요일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시위 군중과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이 맞닥뜨리게 할 의도”(김상훈 의원)라며 표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여당의 탄핵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재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는 하야 주장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1차 탄핵안 부결 때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탄핵 반대에 동



내년 고개숙인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국민에게 사죄한다며 허리를 굽히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 네 차례 고개를 숙이며 “송수스럽고 죄송하며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참했던 김 의원이 찬성으로 선 회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은 5명(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으로 늘었다. 이로써 탄핵안 가결까지 3표만 남았다.

남은 3표가 채워지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게 여당 분위기다. 중앙일보가 이날 비상계엄 상설 특검안 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

한 여당 의원 36명을 중심으로 “2차 탄핵안 때는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를 물었더니 19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5명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1차 때 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이었던 표결 참여 여당 의원이 24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이다.

손국화·김민정·이창훈 기자

여인형 ‘대통령과 초여름 만찬’ 검찰 진술

“대통령, 총선패배 뒤 계엄 꺼내 무릎 꿇고 안된다 만류한 적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인형 국군법집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의도를 처음으로 밝힌 식사(만찬)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과 여 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3인은 총암고 선후배 관계다. 여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 이야기를 꺼내자 “대통령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군이 예전의 그런

군이 아닙니다”며 만류했다고 특수본에서 진술했다.

여 사령관은 “총선 이후 식사 자리에서 처음 계엄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통령께서 실마 계엄을 정말 하시겠나’ 정도만 생각했다”며 “그때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갖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만 답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석경민 기자

▶▶ 2면 ‘계엄 징후’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추가지원 포기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버지니아 등 9개주가 기존의 수혜자 300만명 이상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장 법률과 펜데믹 지원법률에 의거해 거액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주정부에 교부해왔다.

두 법률에 의한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2100만명에 이른다. 하지

만 트럼프 당선자는 메디케이드 특별 교부금을 전면 폐지할 뜻을 피력해 왔다.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과 조지타운대학 아동및가족연구소의 공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등 9개주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메디케이드 확장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메디케이드 확장 재원을 철회하는 곳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애

리조나,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몬태나, 뉴 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이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 법률에 의해 메디케이드 확장을 실시하는 곳은 버지니아 등 40개주와 워싱턴DC였으나, 메릴랜드 등 민주당 집권 지역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LEXUS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
1월 2일 종료

이것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착한 사람에게는 더 멋진 보상이 따라옵니다. December to Remember Sales Event에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찾아보세요. 오퍼는 지금부터 1월 2일까지, 일부 모델에 제공됩니다. 리본은 옵션입니다.

LEXUS EXPERIENCE AMAZING

©2024 Lexus, a Division of Toyota Motor Sales, U.S.A., Inc.

김용현 “다 쓸어버리면 되지”... 대선 캠프 때부터 게임 언급

▶ 1면 '게임 징후'에서 계속

이와 관련해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께서 게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직언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특수본에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3인 만찬’ 멤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대선 이전부터 게임력을 언급하는 발언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중앙일보에 “캠프 관계자와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하던 중 윤 후보 집권 후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시위가 열릴 가능성에 관한 화제가 나오자, (김 전 장관이) ‘그게 무슨 걱정이냐. 게임력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놀랐다. 생각해 보니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으로 게임 업무에 정통한 김 전 장관 머릿속에는 게임 발동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특별수사본부)	경찰(국가수사본부)
12월 3일 주요 대상: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 착수	12월 3일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청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객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조지호 등	12월 3일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한덕수 국무총리 등
5일 수사4부 배당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내란죄 적용 게임수사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5일 안보수사단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6일 김용현 체포영장 등 청구(법원, 기각)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신규 설치	6일 전담 수사팀 120여 명 구성
8일 김용현 관련 사건 이첩 요청	8일 김용현 긴급체포-재소환 조사 휴대전화 압수 및 이상민 출국금지	8일 김용현 공판-집무실-통신내역 압수수색 통화내역 확보-휴대전화-PC 등 압수 이상민-여인형 박안수 출국금지
9일 비상게임 수사 TF 구성, 언론 브리핑 이상민-김용현-윤석열 출국금지	9일 국교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김용현 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9일 조지호-김봉식-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진우-객종근 출국금지
10일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10일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구속) 여인형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10일 게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요구 조지호-김봉식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일 경찰-공수처-군경찰 공조본 출범	11일 김용현 4차 소환	11일 경찰-공수처-군경찰 공조본 출범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나눠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수개월 전부터 게임 발언을 듣긴 했지만, 실제 지난 3일 비상게임

관련 계획을 사전에 하달받거나 선포 이후의 계획을 사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게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현역 국회 의원이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게임 이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지시의 경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비상게임 당시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 사령관이 제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와라’라고 구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와 B1 병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 사령관은 자신의 선관위 출동 지시도 게임령 선포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게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북귀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 추미애가 가장 먼저 알렸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 발부 직전 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아침에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신 본부장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쯤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인 구인 피의자 거실의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했다”며 “문을 여니 (김 전 장관이)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현재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이 아니라 김 전 장관에게 몰아가서 자살 시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러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예의 주시하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의 자살 기도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40분 본인 페이스북에 “출처가 확실한 정보”라며 가장 먼저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2시쯤 김용현씨가 구치소 내에서 러닝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며 “다행히 자살 시도는 불발로 그쳤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용현에

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꼬리 자르기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법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지난 10일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한 채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11일 0시쯤 서울중앙지법 남천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나한 기자

정부, 미국 등에 경제특사 보낸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내정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에 경제특사를 보낸다. 게임·탄핵 정국 속에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해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금융협력 대사’로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75·사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특사 격인 국제금융협력 대사 선임은 2007년 2

월, 2017년 1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에는 북한의 1차 핵실험,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글로벌 투자자의 동요가 컸다.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경제 진단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대응체계도 안정적인

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임명되면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등을 거쳐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을 지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굴지의 투자은행(IB), 신

용평가사 등과 접촉해 국내시장 안정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력 대사는 대외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외교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통상 1년이다. 정부는 경제부처 전직장관들을 중심으로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추가 모색하고 있다.

한편 거시·금융당국도 대외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밤 9시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정부서울청

사에서 화상으로 면담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 중이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옐런 장관이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양국 협력이 앞으로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재민·김기환·임성빈 기자

워싱턴 날씨 (°F)

13일(금)	42~23	16일(월)	52~47
14일(토)	41~27	17일(화)	60~38
15일(일)	46~40	18일(수)	49~32

12월 12일(목) 44~2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워싱턴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토맥빌, 25만불 인기 많은 K- HOT DOG 집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스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Beer & Wine Shop 버지니아 일링턴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북송 월 순 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 Wine Shop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주2만불수입, 렌트 \$7200 + 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앤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중앙시니어센터 30주년 기념식 “어르신들의 삶, 백향목처럼 견고하시길”

가을학기 종강예배도 함께 열려

중앙시니어센터(이사장 류응렬, 디렉터 전민화)가 10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은혜채플에서 가을학기 종강예배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시니어센터의 30년 역사를 축하하며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류응렬 목사는 시편 92:12-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열매맺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류 목사는 “어르신들의 삶이 종려나무처럼 청정하고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축원한다”며, “백발이 성성해도 청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니어센터의 30주년을 축하하



며 성경적 가치와 사랑, 나눔의 정신으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하며 특별히 오랜 세월 센터를 위해 헌신해 온 이해성 전 디렉터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민화 디렉터는 “30년의 역사 중 22년을 시니어센터와 함께 해 왔다는 점에 감회가 새롭다”면서 “새 시대를 맞으

며 젊은 봉사자들과 함께 영·육적으로 강건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시니어들이 되도록 돕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진기찬, 한동주, 조순임, 김상우 씨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종강파티와 함께 마련된 오찬에서 교제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윤미 기자

“2025년 더 열심히 봉사할 것”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송년모임 개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지난 11일 애난데일 소재 한강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0여 명과 함께 김상진 주미대사관 해병대 중령,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를 되

돌아보며 소회를 나누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교포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실천하는 재향군인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송년모임은 회원들 간의 화합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김윤미 기자



유치원 백신접종률 계속 하락하는 이유?

버지니아 공립 킨더가든(유치원) 학생들의 백신 접종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킨더가든 학생 중 백신 미접종 비율은 2.4%로 2014년의 0.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버지니아는 2015년 이후 공립학교 학생들의 백신 접종 거부 사유를 계속 늘려왔다. 최근 백신 미접종 학생 대부분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것이다.

유대교 등 일부 종교는 백신을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홍역 등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교육당국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홍역 집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는 광범위하게 백신 거부 사유를 인정하면서 백신 미접종률이

3.3%에 달한다.

문제는 버지니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실제 백신 미접종률이 훨씬 높았다. 2015년 백신 접종률은 94.4%였으나 2024년에는 88.6%에 그쳤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신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장학금 수여식 및 축하 음악회 개최

월드미션칼리지

월드미션칼리지(총장 양광호 박사)가 지난 10월, 미국 연방 인증기관인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로부터 기독교대학 학력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학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학은 오는 15일 오후 4시, 학교 본관에서 축하 음악회와 함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음악회에서는 페어팩스한인학교 성

가대와 전문 음악인들이 합창과 독창, 악기 연주로 찬양곡을 선보인다.

또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신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편 월드미션칼리지는 2002년 설립된 순수 복음 중심의 신학대학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신학사, 선교 및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문의: 202-999-8279 (월드미션칼리지) 장소: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MD 경찰국장이 VA에서 음주운전사고 현행범 체포돼

메릴랜드의 한 경찰국장이 버지니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칼리지 경찰국장 데릭 마이어스(55세)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용의자는 6일 오후 7시30분경 페어팩스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됐다.

용의자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용의자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 0.20%를 훨씬 넘

은 0.28%를 기록했다.

경찰당국은 용의자를 보석금 재판 없이 구금하고 6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6급 중범죄 혐의는 최대 1-5년형과 최대 2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옥채 기자

이화여대 연말파티

이화여대 총동창회 워싱턴 DC 지회(이지은 회장)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웨스트우드 컨트리 클럽(Westwood country club)에서 연말파티 및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내년도 워싱턴에서 열릴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경매 및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와 게임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등록비: 개인 100달러/커플 180달러 장소: 800 Maple Ave E, Vienna, VA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에게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웃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워싱턴 지역 한미 나라사랑 기도 운동 연합회 총회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2월 19일 (목) 오전 11시

장소 메시아 장로교회 (한세영 목사 시무)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본 기도회는 2015년 7월 교계의 원로이신 김택용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여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메시아 교회에서 매월 1회씩 91차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 후 중식을 함께 나누는 워싱턴 지역 기도 운동 연합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단체입니다.

열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분들

- 이사장: 권동한 장로
- 고문: 정규섭 장로
- 상임이사: 김택용 목사, 우성원 장로
- 이사: 유흥주 장로, 오래한 목사, 방혜식 목사, 정세권 장로, 정운익 목사, 이익섭 목사
- 회장: 오래한 목사
- 부회장: 방혜식 목사
- 회계: 박금자 사모
- 감사: 유흥주 장로
- 분과위원장: 최인동 목사, 정세권 장로, 이은숙 목사, 방국희 사모
- 사무총장: 한 훈 목사

연락처: 회장 오래한 목사 (301) 873-5524 / 사무총장 한 훈 목사 (703) 928-8151

“보고할까, 기다릴까”... 한인 업주 BOI 혼란

연방법원이 시행에 제동 정부는 여전히 서류 받아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 시행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정부가 아직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도 혼란에 빠졌다. BOI 시행이 일시중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유예된 상태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BOI 보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벌금 등의 패널티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OI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는 앤드류 송씨는 “벌금은 안 내도 되지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우려 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 규정이 혼선을 빚으면 소상공인에게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업기떡볶이와 칼라베이글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알렉스 손 ALMG 호스피탈리티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재

개된 뒤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보고했다”며 “소상공인에게 벌금 규모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있어 버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차 CPA도 “일시 중단된 보고의무가 재개되면 하루 이틀 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기간을 납세자들에게 부여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I 의무 보고 규정은 2021년 통과

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국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반드시 기업의 수익과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법규정이다.

소유권 정보에는 고위 임원, 중요 의사 결정권자,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자 BOI 규정을 도입했다.

조원희 기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한인 치과의사 교도소 수감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한인 치과의사가 형량을 선고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조지아주 연방검찰 북부지검은 치과의사 폴 김(31·한글명 김보근) 씨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FBI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에 위치한 김 씨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FBI는 그의 자택에서 전자기기 약 30대에 사진 약 1948장, 동영상 798개를 찾아냈다. FBI는 온라인 미성년 성매매 관련 수사를 하던 도중, 김 씨가 249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김 씨는 검찰과 사진 형량 조정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 김경준 기자

한국 연예기획사 JYP ‘미성년 노동 착취’ 피소

걸그룹 ‘비취’ 17세 멤버 소송 “매일 12시간씩 일 강요, 학대” JYP “허위 사실, 대응 나설 것”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JYP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비취(VCHA·사진)의 미국인 멤버 케이지(KG)는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6일 JYP USA를 상대로 LA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JYP USA는 JYP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올해 17세인 케이지는 소장에서 적절한 의료 처치 없이 혹독한 리허설 강요로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아픈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급 500달러에 매일 12시간씩 일했으며, 사생활 통제와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주장도 담겨 있다.

케이지는 비취 멤버의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소속사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자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케이지는 소송 제기 하루 뒤인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취 탈퇴와 JYP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



는 친구(멤버)들이 걱정된다”며 “JYP 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케이지 측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앞으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지의 변호인인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케이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JYP 소속 다른 어린 가수들에 대한 부당 대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JYP USA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대 4시간, 휴일엔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으며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이지 측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JYP USA 측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JYP USA는 9일 입장

문을 통해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취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지가 지난 5월 그룹 소속을 이탈한 뒤 법정 대리인을 통한 논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사는 비취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번 소송은 내년 상반기 앨범 발매 등 열심히 활동을 준비 중인 비취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취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사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걸그룹으로 지난 1월 데뷔했다. 멤버 가운데 케이지·렉시·사바나·켄달은 미국, 카밀라는 캐나다 국적, 케일리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영남 기자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

건강보험사 CEO 살해 용의자 체포 때 ‘반기업 선언문 소지’



터는 전했다.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은 NBC 인터뷰에서 “세 쪽으로 된 선언문에는 반기업 정서와 의료보험 업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이뤄질 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UHC)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50) 최고경영자(CEO)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맨지오니(26·사진)는 체포 당시 미국 사회와 대기업에 적대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담긴 선언문을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언문에는 “솔직히 말해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뉴욕 경찰의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경찰 보고서는 맨지오니가 톰슨 CEO의 살해를 상징적인 제거이자 제약업계의 부패 및 ‘파워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여겼다고 평가했다. 맨지오니는 선언문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갈등과 트라우마를 일으킨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그것은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맨지오니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술문명을 반대하며 폭탄 테러범이 된 테드 카진스키를 흠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유나바머(Unabomber)’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카진스키는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대학과 항공사 등에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 3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이다.

맨지오니는 SNS에서 카진스키를 “극단주의적 정치 혁명가”라 칭하고 그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미래를 두고 “선견지명이 있다”고 칭송했다고 로이

조지프 케니 뉴욕경찰청 수사국장도 브리핑에서 맨지오니에 대해 “코퍼레이트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에 악의를 품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는 미국의 대기업 또는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다.

맨지오니는 이날 범죄인 인도 심문이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블레이크아웃 법원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향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미국 국민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외쳤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법원은 이날 맨지오니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 허가를 거부했다.

한편 맨지오니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께 뉴욕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 인도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구독 신청
703-281-9660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유학생들 이중고 ... 환율에 긴장

대학들, 유학생 조기 복귀 권고
환차손에 학비 수백만원 늘어

한인 등 유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이민 정책 예고부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악재를 두고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감소, 비자 발급 지연, 환율 급등으로 인한 학비 인상 등의 악영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1410원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 학비를 납입하는 만큼 이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수만 달러의 거액이 학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미세한 등락에도 몇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USC의 경우, 2024-25학년도 봄 학기 학부생 기본 학비는 수업료, 교통비, 학생회비 등을 모두 포함

해 3만5529달러다. 만약 한국에 있는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27일 자녀의 다음 학기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날 환율(1393원) 기준 4913만6607원을 학비로 지불했다. 반면,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0일 다음 학기 학비를 냈다면, 이날 환율(1435.20원) 기준 5099만1220.8원이 학비로 나갔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같은 액수의 학비를 두고 불과 2주 사이 원화로 200만 원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USC에 재학 중인 홍기호(1학년·사회학)씨는 “환율 급등은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된다”며 “유학생 대부분이 학비를 비롯해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등을 모두 달러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도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만큼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학생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예고한 강화된 이민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시간대, 코넬대, 예일대, MIT, 매사추세츠대학, USC 등 유수의 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학생에게 해외 출국을 삼가거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입

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시간대 국제처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비자 갱신, 해외 출입국 계획 수립 등 유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메일로 안내했다. 차기 정부의 이민 정책 조정으로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등 일부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시간대 재학 중인 신승민(3학년·통계학) 씨는 “최근 학교 어드바이저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며 “학교 측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USC는 지난 3일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개강일인 내년 1월 13일 이전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또 LA국제공항에서 구급금 경우, 학교 로스쿨 클리닉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USC 대학원에 다니는 샘 전 씨는 “학교에서 조기 입학 권고 메시지가 통보된 이후 많은 유학생이 당황해했다”며 “교내 학생 게시판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가족·취업이민 소폭 진전에 그쳐

내년 1월 비자 발급 우선일 공개
가족이민 3순위 석달 빨라져

2025년 1월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 진전에 그쳤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22일로 3주 빨라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

수가우선일자가 모두 진전한 모습이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석달 가까이 진전했고,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가량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와 2B순위 역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각각 2017년 9월 1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대부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앞당겨졌지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일체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2025년 1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5년 11월 22일 (2015년 10월 22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4년 7월 15일 (2024년 7월 15일)
	2B	2016년 5월 22일 (2016년 5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0년 7월 1일 (2010년 4월 15일)	2012년 7월 22일 (2012년 4월 22일)
	4	2007년 8월 1일 (2007년 8월 1일)	2008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
취업이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4월 1일 (2023년 3월 15일)	2023년 8월 1일 (2023년 8월 1일)
	3	2022년 12월 1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3월 1일 (2023년 3월 1일)
		2020년 12월 8일 (2020년 12월 1일)	2021년 5월 22일 (2021년 5월 22일)
	4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4년 12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구글 ‘꿈의 기술’ 양자칩 공개

수퍼컴 10자년 걸리는 문제
큐비트 최적화로 5분내 연산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컴퓨터로도 10자년(10십억년, 10의 25제곱) 걸리는 계산을 5분 이내에 해낼 수 있는 양자칩을 공개했다. 꿈의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팅의 상용화가 더욱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구글의 양자컴퓨팅 연구회사 구글 퀀텀AI의 창업자인 하트무트 네벤은 지난 9일 구글 블로그를 통해 최신 양자칩 윌로우(Willow)를 발표했다. 네벤에 따르면 윌로우는 양자컴퓨팅



구글퀀텀AI가 공개한 최신양자칩 윌로우. (구글블로그캡처)

걸리는 계산을 5분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로 정보를 처리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빠르고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계는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다.

항암치료제 등 신약 개발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신소재 발견, 금융상품 모델링, 핵융합, 우주공학 등 거의 모든 연구 영역에서 양자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있다.

정용환 기자

UBS “내년에도 증시 상승 전망”

UBS는 주식시장에서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한 가치로 계속 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인사이드(BI)는 올해 S&P500의 주가수익비율은 22.2배로 지난 30년 평균인 16.8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최고치인 25.0배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은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의

미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그러나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주식 가치 상승이 정당하며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난란 골라피 이끄는 UBS 애널리스트팀은 우선 S&P500 지수에서 기술 섹터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UBS는 “현재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억제되면 내년에도 밸류에이션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금융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L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라조)들
해밀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라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트럼프 불신임 받은 레이 FBI국장 “내달 물러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불신임'을 받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1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국장

고 물러나는 것이 FBI에 옳은 일이라고 결정했다"고 FBI 직원들에게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달 20일 종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트

럼프 행정부 출범 후로도 2년여 남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총성과'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트럼프로부터 사실상의 '불신임'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레이 국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레이 현 국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1차 임기 종료 후 기밀자료 반출 및 보관 건수사에서 FBI가 트럼프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를 압수수색한 일을 계기로 트럼프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이 정설이다.

“시리아 반군, 알아사드 부친 묘지에 방화”

시리아 반군 일부가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부친 묘지에 불을 질렀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이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부친 바샤르 알아사드의 무덤에 방화했다.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서부 도시 라타키아 부근 카르다하 마을에 있는 하페즈 알아사드의 무덤에 반군이 방화했다.

군인 출신인 하페즈 알아사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1971년 대통령으로 선출돼 2000년 심장마비로 숨질 때까지 장기권 통치했다. 차남 바샤르 알아사드가 그의 뒤를 이어 바로 대통령에 올랐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언덕 위에 석재로 꾸며진 대형 묘지 구조물이 불타고 파괴된 모습이 담겼다.

이 묘지에는 하페즈의 장남으로 애초 후계자였던 바셀 알아사드의 무덤도 있다.

바셀은 1994년 교통사고로 숨졌다. 형 대신 권력을 세습한 바샤르 알아사드는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이후 13년간 내전이 계속됐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 속에 정부군에 전세가 기울었지만 지난달 말 시작된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도피했다.

“바이든 아들사면, 22%만 찬성”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에 대해 소수의 미국 국민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지난 5~9일 1천251명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2%만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1%는 헌터 사면에 반대했으며 18%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38%만, 무당층에서는 12%만, 공화당 지지자는 7%만 각각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사면 결정을 찬성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P통신의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는데 이는 근래 여론조사 수치와 유사한 수

준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전격적으로 사면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4차례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비교돼온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비판이 나왔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성 추문 입막음 사건이 사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존 페터먼 연방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처음 글을 올리고 “트럼프의 입막음 돈 사건이나 헌터 바이든의 사건은 모두 헛소리며 사면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골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무기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집단적인 믿음을 약화하며 추가적인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수일내 신형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발사 가능성”

“러 신형미사일 ‘오레스니크’, 게임체인저 아난트...우크라 겁박용”

러시아가 향후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신형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오레스니크’를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미국 당국자는 미국 정보 당국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국자는 “우리는 오레스니크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전황을

바꾸는 결정적 무기)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겁박하기 위해 또 한차례의 시도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개암나무’라는 뜻인 오레스니크로 명명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제4의 도시 드니프로로 발사했다.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개조를 거치면 핵탄두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미사일은 미사일 1기로 여러 발을 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체(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인 것으로 평가됐다.

사거리 최대 5천500km에, 최대 속도 마하 10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현재 서방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는 요격하기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채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애플, 브로드컴과 AI 서버 칩 개발 중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함께 인공지능(AI) 연산 처리를 위한 서버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11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의 AI 칩 개발은 내부적으로 ‘발트라’(Baltra)라는 코드명

으로 진행 중이며, 2026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칩 생산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최신 공정 중 하나인 3나노급(N3P)이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글로벌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개발한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 10위의 기업이다. 애플은 지난해 5월 브로드컴과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주파수(RF) 부품과 최첨단 무선접속 부품 개발을 위해 다년간에 걸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오승환

Seung Oh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 은행잎 추출물
- 자색 고구마
- 비타민 A
- 루테인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온가족 눈 건강 지키기

아이클리어(정)



연말행사
12/31까지

10%할인+ 무료 선물

FREE GIFT OR FREE GIFT

씨(C)밸런스 / \$39 아오지루 녹즙 / \$39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 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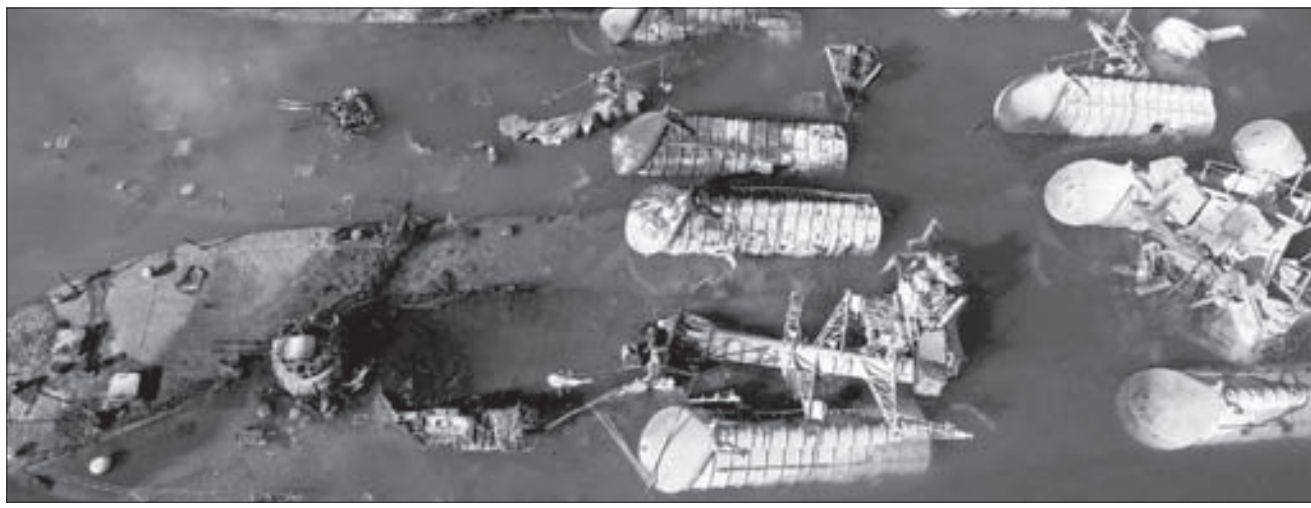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이스라엘, 시리아 480회 공습... “무기고·미사일·전투함 파괴”

51년만에 시리아내 지상작전도 전략무기 무력화 “안전구역 조성” 아랍 “이, 시리아 위기 악용” 비난



10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시리아 라카티아에 정박해 있던 시리아 군함들이 파괴된 채 바다 속에 잠겨 있다.

[AFP-연합뉴스]

2대에 걸쳐 시리아를 철권통치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역을 공습하면서 완충지대 넘어 지상군을 보내고 있다. 반군 세력에 아사드 정부가 보유했던 무기가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취지다.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아랍국들은 시리아 위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전역에 480회의 전투기 공습을 감행해 시리아의 무기 저장고 대부분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활동가 단체인 VOC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지난 15년간 다마스쿠스에 이뤄진 가장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IDF는 다마스쿠스·홈스·타르투스·라카티아·팔미라 등에 있는 공군 비행장과 대공포대, 무기 생산 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350여 차례 공습했다. 스

커드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전투기, 공격용 헬기, 레이더, 탱크, 격납고 등 무기의 상당수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무기고와 군사 시설, 발사대, 발사 위치를 표적으로 한 지상 작전도 감행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130곳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토에 지상 작전을 수행한 건 1973년 욘키푸르 전쟁 이후 51년 만이다. 또 시리아 함선 15척이 정박해 있는 라카티아의 해군 시설

2곳을 격파해 수십 개의 해상 미사일을 파괴했다.

아랍 매체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군 중이라고 전했다. VOC는 IDF가 10일 다마스쿠스에서 25km 떨어진 베카섬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베카섬은 시리아-레바논·골란고원 국경에 위치한 요충지다.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위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자국 안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

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저장소, 미사일 저장소 등이 넘어가게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IDF의 목표가 시리아 남부에 무기과 테러 인프라가 없는 안전 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반군 조직을 향해 “누구든 아사드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와 같은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사드 정권 붕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하마스·헤즈볼라를 강타한 게 직접 원인”이라며 “우리가 중동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반군은 10일 과도정부 수반으로 모하메드 알 바시르를 임명했다. 내년 3월 1일까지 과도정부를 운영하게 된 바시르는 시리아 북서부 반군 조직 구원정부(SSG) 수장을 지냈다.

가디언은 아랍 국가 대표들이 HTS 관계자와 회동했다며, 조만간 과도 정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방 국가들도 HTS의 향후 행보에 따라 ‘테러 단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누가 다마스쿠스의 지휘권을 잡든 시리아 전역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리아는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수니파 반군(북서부), 쿠르드족(북동부), 요르단 지원을 받는 반군(남부), 아사드 충성파, 알라위 종파가 주도하는 세력(서부) 등이 각각 군대를 보유하고 점령지를 늘려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상 분할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형수 기자

이젠 예비 며느리까지... 트럼프, 그리스 대사에 기용

장남 약혼녀... 전 폭스뉴스 진행자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이번 주말 밤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민영 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이번 주말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재임 시절 아베 전 총리와 자주 골프 회동을 하며 서로를 ‘신조’ ‘도널드’로 부를 만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아키에 여사의 트럼프 당선인 면담 추진



과 관련해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특사 성격이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당초 일본 측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 조기 회동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비정치인인 아키에 여사를 투입하는 모양새라는 해설이다.

한편 가족들을 잇달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김벌리 길포일(사진)을 그리스 주재 미국대사로 10일 지명했다.

김사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길포일은 2020년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 며느리다.

같은 날 차남인 에릭은 아랍에미리

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친(親)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릭은 트럼프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인사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 서자 “아빠(pops)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일가는 현재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월드 리버티 파 이낸셜’을 갖고 있다.

김상진 기자

CNN, 미국 국민 54% ‘트럼프 잘할 것’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헨터를 사면한 것에 대해 소수의 미국 국민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지난 5~9일(현지시간) 1천251명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2%만 바이든 대통령의 헨터 사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51%는 헨터 사면에 반대했으며 18%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38%만, 무당층에서는 12%만, 공화당 지지자는 7%만 각각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헨터 사면 결정을 찬성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헨터 사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P통신의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는데 이는 근래 여론조사 수치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아들 헨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전격적으로 사면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서는 당내에서도 4차례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비교돼온 민주당의 도덕적 우월성을 약화하는 조치라면서 비판이 나왔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성 추문 입막음돈 사건이 사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존 페터먼 연방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만든 소셜 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처음 글

을 올리고 “트럼프의 입막음 돈 사건이나 헨터 바이든의 사건은 모두 헛소리며 사면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골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무기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집단적인 믿음을 약화하며 추가적인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페터먼 상원의원은 이스라엘 정책 및 국경 문제에서 민주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당내에서 중도적으로 분류된다.

한편, CNN이 1천11명 대상으로 지난 5~8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

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55%는 트럼프 당선인의 현재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체의 38%는 ‘미국 상황이 잘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12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CNN은 보도했다. 또 응답자의 48%는 트럼프 당선인이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최근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지지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DEC. 12th - DEC. 19th, 2024

갯잡아 바로 얼려 더욱 싱싱한
해푸름



냉동 
통낙지
탱클탱글
세일~!

HAEPURUM FROZEN
SMALL OCTOPUS WHOLE
SPECIAL
SALE



\$13⁹⁹

\$7.99
1.3 LB

편집 중 오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문구는 사정에 따라 조기조정 또는 수정/제외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 Sterling, VA 35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 Centreville, VA 52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955 Mitrovich Dr. Chantilly, VA 20151
- Arlington, VA 52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800 Farnsworth Hunt Place Ashburn, VA 20147
- Hemdon, VA 4900 Blain Street Henrico, VA 20186
-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Catonville, MD 80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038
-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erthen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erthensburg, MD 20836

스웨덴 밤 빛낸 한강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



스톡홀름 '노벨만찬' 서수상소감
검은 드레스 입고 화장기 없는 모습
국왕 사위 에스코트 받으며 입장

“문학은 필연적으로 체온 품고 있어
언어라는 실따라타인 마음 들어가
글쓰며 경이로움을 계속 경험 중”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노벨 만찬'에 참석한 한강 작가와 크리스토퍼 오닐(왼쪽), 오른쪽 사진은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증서(가운데 사진)를 받은 한강 작가. [AFP-연합뉴스·뉴스1]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만찬 연설은 문학을 향한 지고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는 문학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본질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섬세한 사유로 풀어냈다.

‘노벨의 날’로 불리는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한강 작가는 검은 드레스와 구두 차림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기 없는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연미복을 차려입은 10명의 남성 수상자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노벨상 시상식은 192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유서 깊은 행사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2년간을 빼고는 매년 열렸다.

시상식 내내 그는 허리를 곧추세우고 심사평을 경청했다. 엘렌 맞선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이 스웨덴어로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땐 고개 숙여 영어 스크립트를 읽었다. 이윽고 이름이 불렸다. “친애하는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폐하게 상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나온 한강 작가는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악수했다. 그리고 메달과 증서를 전달받았다. 좀처럼 크게 웃지 않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1700여 명 청중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시상식 뒤에도 무대에 남아 번역가와 교민, 출판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담소했다.

올해 노벨상 수상 11명 중 유일 여성

수상자와 그 가족, 스웨덴의 왕족, 총리 등 주요 인사, 노벨위원회 및 한림원 관계자, 과학·문학계 주요 인사 등 1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 ‘노벨 만찬’이 시작됐다. 만찬은 ‘노벨 워크’의 가장 큰 행사로, 시상식이 끝난 뒤 스톡홀름 시청 블루홀에서 열린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로 입장했다.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과 중앙 VIP 테이블에 앉았다. 노벨에 경의를 표하는 국왕의 축배사로 만찬이 시작됐다. 식사 중간중간 음악극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오후 10시50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입니다”라는 또렷한 한국어가 울려 퍼졌다. 사전 배포된 프로그램 식순에는 없던 내용이다. 영어로만 소개한 다른 수상자와 달리, 한강 작가는 한국어와 영어로 호명했다. 단상에 선 그는 예의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그는 “여덟 살이었던 어느 날이 떠오른다”며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11일 스웨덴 스톡홀름 린케뷰의 도서관에서 다문화 학생들과 대화하는 한강 작가. 홍지유 기자

쏟아졌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스물네 명의 아이가 건물 처마 밑에 모여 몸을 피했다”고 회고했다.

“그들 각자도 저처럼 이 비를 보고 있었고, 저처럼 이 습기를 느끼고 있었죠. 수많은 1인칭 시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글을 쓰며 경이로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학은) 언어라는 실을 따라 다른 이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며 세계 가장 소중하고도 절박한 질문들을 그 실에 의지해 다른 이에게로 보내는 행위”라면서다.

문학을 통해 천착한 질문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을 통해 던져져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살이의 의미는 무엇 일까요? 인간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3분간의 영어 연설에서 한강 작가는 문학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고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힘주어 말했다. “문학

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본질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이 문학을 위한 상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이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지 다문화학생 100명과 대화시간 가져

한편 시상식 이튿날인 11일 오전 한강 작가는 스톡홀름 인근 린케뷰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해 다문화 학생 100여 명을 만났다. 이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 가정 비율이 매우 높다. 인근 공립학교 9학년생인 이스타브락은 “한강의 장편 ‘흰’을 가장 좋아한다”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어떤 기분이었나”고 묻자 한강 작가가 “압도되는(overwhelming)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한강 작가와의 대화에 앞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시를 낭독했다. 4학년생 사피나 야흐랄베코바는 “한강의 책을 읽고 구굴로 ‘서울’을 검색해 나온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렸다”며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다.

스톡홀름-홍지유 기자

서울 ‘도시 경쟁력’ 세계 6위 재탈환

7년만에 암스테르담 다시 제쳐
“기후동행카드·새벽버스 등 영향”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 순위

1위 런던	6위 서울
2위 뉴욕	7위 암스테르담
3위 도쿄	8위 두바이
4위 파리	9위 베를린
5위 싱가포르	10위 마드리드

서울시가 유력한 도시 경쟁력 평가 지표에서 7년 만에 6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서울시는 11일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서울이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GPCI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한다.

서울시가 GPCI 평가에 처음 참여한 2008년 순위는 13위였다. 이어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6위를 유지하다가 2018년 유럽의 혁신적 스마트시티로 꼽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밀려 7위로, 2020년엔 독일 베를린이 젊은 벤처 도시로 치고 올라오며 8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 선거로 되돌아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해 2022년 베를린을, 올해는 암스테르담을 다시 제쳤다.

서울은 연구개발(R&D) 분야 경쟁력

이 세계 5위라는 평가다. 교통 편의성·수송력 등을 평가하는 교통 접근성 분야는 1년 만에 20위에서 16위로 뛰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도입,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거주 분야 순위는 35위로 낮은 편이다. 뉴욕(39위)·로스앤젤레스(41위) 등 주택가격이 비싼 대도시는 대체로 이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로 낮다.

런던(2012년 1위)·도쿄(2020년 3위)·파리(2024년 4위) 등 최근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대거 최상위권에 포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서울은 2036년 올림픽 유치에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민 일상을 챙기겠다”며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화철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www.ebluu.com



30년의 여정을 기념하며,
특별한 혜택과 이벤트로 보답합니다!

**총 \$1,500 상당의
10" 태블릿 5대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프로모션 기간: 10/1/24 - 3/31/25

bluu™ Tab Order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퀵서비스 레스토랑

레스토랑 테이블 사이드 주문 서비스의 혁신



편리함

손님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 실수 감소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함으로써 잘못된 주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대기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식사 시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

편안한 환경에서 주문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 **9.90**
기기 1대당
월사용료

1 - 5STATIONS



*Merchant Processing Account Required. Additional Fees, Terms and Conditions Apply.
최저 수수료는 가게 매출에 따라 책정이 되며, 실제 ticket size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nual PCI Fee and Payment Module Fee 별도.



Virginia Office | 판매문의

703.750.1707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6, Annandale, VA 22003

한동훈 “국민여론 심각, 대응 속고”… 탄핵 가결 염두발언

▶ 1면 ‘탄핵’에서 계속

이들 중 7명(찬성 5명, 고동진·박정호 의원 반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찬반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기명 투표인 상설특검안 표결 때도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 표결 때 찬성표 3표가 안 나오겠나”며 “탄핵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변한 기류는 한 대표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대표는 주변에 “계엄 사태 관련 폭로나 수사 속도 등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여기에 대비할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 가결을 염



김재섭

두에 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금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사태 관련자들이 다 불고 있지 않나”며 “국민이 느끼는 심각성도 커지는데 이를 민감하게 살펴 대응을 속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선 조금 더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차 탄핵안 부결 나흘 만에 국민의힘이 탄핵으로 기운 것은 계엄 사태를 둘러싼 긴박한 정국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내란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되고, 11일 새벽 경찰 국가수사본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긴급 체포하자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수사의 칼끝이 곧 윤 대통령을 겨눌 것”이라는 반응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한다. 친윤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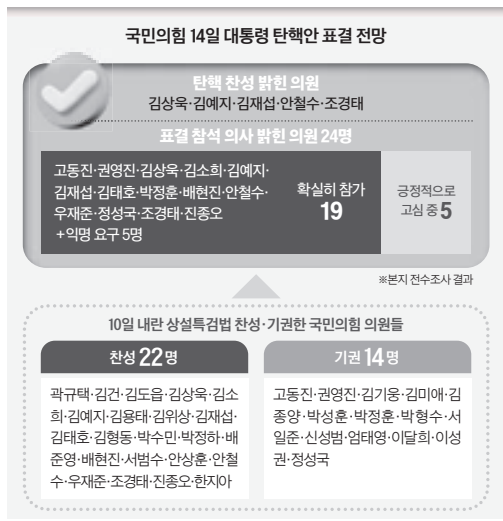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친한계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표결 대응을 논의한 뒤 국회 당 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그는 “2차 표결엔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서도 탄핵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말들이 나온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내가 봐도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제기되는 폭로 수위가 심각

하더라. 이제 탄핵 여론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하야보다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모색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 위원은 “홍철호 정부수석에게 물었더니 ‘탄핵으로 가는 수 말고 방법이 있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핸드폰 바꾼 윤 대통령, 쓴소리하던 사람엔 번호 안 줘”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옛새책 관저에 접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참모에게서 현안 보고는 받고 있지만, 하야와 탄핵이란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도, 자기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수사와 탄핵에 대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들은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향후 행보를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할 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며 버럭 화를 내곤 했다

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핸드폰을 교체한 뒤론 법조계나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전직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은 새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주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나도 번호를 받지 못했다”며 “예전엔 텔레그램으로 쓴소리라

도 전했는데, 이제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라고 했다.

친윤계 일각에선 “자진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낫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여당 지도부가 검토해 온 ‘2~3월 하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변수도 많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친윤계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현재 연구관을 지낸 김선후(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백은 다른 사안과 판이한 문제”라며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리를 중단하면 헌재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윤지원 기자

“정보사 000 알아요, 몰라요”… 극비 군사기밀 쏟아졌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군 기밀 노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 수뇌부가 제입으로 작전 기밀 사항 등을 았다 뒤 공개하면서 북한이 이를 역으로 대남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 ‘20명 체포조’ 의혹 등을 질문하며 최소 5명의 정보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특정 요원의 실명을 대며 “000 알아요, 몰라요?”라고 묻는 식이었다. 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사령부 지휘 인원”이라며 이들이 정보사 요원임을 시인했다.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에 특화된 기관으로 요원 관련 정보는 극비다. 신분을 감추고 첩보 활동을 하는 만



특정요원 실명 생중계하고



대통령-국정원 대화문 공개



전투통제실-작전 실토까지

큼한 사람의 신원만 특정돼도 한국 측 다른 요원들과 이들의 해외 정보원까지 줄줄이 위협해질 수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 “정보 요원은 중요한 자산인데 이름을 대면 큰일 난다. 저희가 쌓아온 굉장한 자산들이 한번에 날아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는 탄식이 나온 이유다.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유

사시 군 지휘부의 통신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지면서 기밀 송수신망의 작동 기제가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였던 합참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의 구조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자신해서 묘사하는 일도 있었다. 박 총장은 손

짓을 동원해 “합참에 가보면 한층 높은 (지하) 3층에 전투통제실이 있다”며 “회의실은 지휘·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시 화상도 할 수 있고…”라고 설명했다.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변을 끊어야 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는 목소리가 다급히 나왔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북한 지휘부 제거에 투입될 특수 장비와 부대 관련 세부 사항이 전부 노출된 셈”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무장 수준과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당시 국회 진입에 대해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이라며 훈련명을 공개했다. 이어 “테이저, 공포탄, 방패, 케이블타이를 이용했다”며 부대원들의 무장 장비

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비공개 발언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7일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다 때려 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쟁 준비에 총대진하자”(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달 15일)고 위협하는 북한이 충분히 대남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이는 일방의 주장이라 진위도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홍 전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통령님’과 ‘무선보안’ 1000번이라고 명시된 비화폰의 수·발신 통화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로, 기밀 등을 다루는 고위 당국자들만 사용한다. 이를 자의로 공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분 - 셀러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일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 **페이팩스 싱글 \$795,000** (Under Contract)
방 4, 욕 3, 2 레일 싱글, 로빈슨 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토티부룩 힐,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벨링.
- **옥톤 싱글 렌트 \$3,600**
방 4, 욕 2, 차고 2, 어메이징 뷰, 정월, 조용한 동네, 123/66/267/495/286, 미디슨 하이
- **센터빌 콘도 렌트 \$2,100**
방 2, 욕 2, 마루, 발코니 29/66/28/50, Hinnat, Lofte 인근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 **메니사스팍 타운 렌트 \$2,900**
2400sqft, 방 3, 욕 3.5, 차고 2, Harris teetor를 곁에서, 센터빌에서 7.50일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마용실 \$90,000
- 개인실업 성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즉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관광의 모든 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탑여행사에 방문하시면 2025년 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풍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 운영, 모시고 갑니다.

1차 3/25~4/04 4차 9/16~9/26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차 4/15~4/25 5차 10/14~10/24

3차 6/17~6/27 (영어 투어) 6차 10/21~10/31

7차 10/28~11/07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
 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옵션)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티아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박사원 코끼리 트레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레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모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안, 투본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류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애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공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야류해양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윈더스, 핸드스 웨이 브릿지, 하저라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인공원, 차이나타운, 센트사섬, 실로소비티

X-마스 특선

라디오 시티 라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 시티 스펙타큘러 쇼 관람

1박 2일 12/23~24 \$499

당일 **산타와 함께하는 스트라스버그가차 & 롱우드가든** 12/20 \$179

당일 **라디오 시티** 12/17, 12/23 \$199

2025 신년 해맞이 (조식 제공) 1월 1일 \$89

성극 다니엘 12/19 \$199

12/20일 마감, 단체 8명부터 환영
 2025년 3월부터 '노아' 공연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뉴욕 브루클린 댐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옐로스톤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알래스카 3박 4일 \$93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게임 3시간전 경찰청장·서울청장 불러 준비 지시

경찰 “김용현 등과 안가서 4인 회동”
A4 1장으로 게임 뒤 지시사항 하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게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 명단 등을 적은 문서까지 조 청장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중수 국수본부장)은 10~11일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을 상대로 지난 3일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진술로 확인했다. 특히 A4 용지 한 장인 해당 문서에는 ‘게임 선포 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당사·MBC·여론조사 곳 등 10여 곳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10줄가량의 지시문이 담겼다고 한다. 조 청장은 “양식으로 볼 때 국방부발 문건으로 보였다”며 “공관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뒤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생각해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뒤 오후 11시37분쯤부터 6차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청장은 “게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10시쯤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또 이날 오전 11시36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합참이 불응했다. 양측은 서로 대치했고, 오후 8시쯤 대통령실과 합참 측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만 받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영장에 대상 장소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경호처·101 경비단·합참 지하 3층 통합 지휘실 등이 포함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빠져졌다. 특수단은 게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전투통제실과 그 안의 결심실 등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경찰은 여당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특수단은 전날(10일) 피의자 신분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출석요구를 보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로 고발됐다. 한편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군 경찰)는 이날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경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살려 상호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

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과 군 경찰은 영장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 공수처를 통한 영장 청구로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무산되는 것뿐 아니라, 수사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공조본에서 검찰만 배제한 데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겪는 비상사태 앞에서 실질적 협력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은채·허정원·이찬규 기자**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사상 초유 동시 긴급체포

국회 출입통제 등 내란가담 혐의
“조직 보호 위한 선제 조치” 해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체포된 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입건한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조직 보호를 위해 선제 조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단장 우중수 국수본부장)이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한 건 이날 오전 3시49분쯤이다. 두 사람

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려고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청은 이호영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를 대행한다. 일각에서는 수뇌부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우려했다. 이달 예정된 치안감·치안정감 인사, 내년 1월 총경 인사 등이 모두 멈췄다.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휘부

와 경비 라인이 수사 대상인 점도 혼란을 더한다. 입건된 목현대 국회경비대장 외에도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서울·경기남부청 경비 라인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도 내부망 ‘현장활력소’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실감감을 나타낸 글이 다수 올랐다. 서울 한 경찰서 경정은 “긴급체포는 그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는 건데, 수사 강도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청 소속 한 총경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할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5년만에 NYT 떠난 폴 크루그먼 “최악 통치 맞서야 나은 세상 온다”

(노벨경제학상 칼럼니스트)

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25년 동안 뉴욕타임스(NYT)에 칼럼을 써온 폴 크루그먼 뉴욕시티대학원 석좌교수가 10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를 그만둔다고 밝혔다. 크루그먼은 예일대에서 학사, MIT대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MIT·프린스턴 등에서 교수를 지냈으며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

그는 이날 ‘마지막 칼럼: 분노의 시대에 희망 찾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2000년 1월 시작한 칼럼을 중단하지만 세상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크루그먼은 NYT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지난 25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를 회고했다. 25년 전만 해도 미국과 서구 세계의 많은 사람이 낙관적이었지만

지금 분노와 원한으로 대체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분노는 엘리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노동계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억만장자들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해 분노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1999년과 2000년 미국인 대다수는 오늘 기준에 비추면 초현실적일 정도로 만족하며 살았으며 평화와 번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회상했다.

유럽에서도 1999년 도입된 유로화가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뤄 미국에 필적하는 유럽합중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3회 CIRIEC(세리엑) 국제학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대가 팽배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오늘날 낙관주의가 사라진 이유를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을 꼽았다. 대중들이 정치인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2년과 2003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사기극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받아들일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자신 있게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2008년의 금융위기가 정부가 경제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믿음을 깨트렸으며 유럽에서도 유로화가 밝은 앞날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거의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존중받던 IT 억만장자들과 IT 제품들도 더는 존중받지 못한다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IT 억만장자들이 우경화되는 조짐이 뚜렷하다면서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진보 세력 때문에 이들이 우경화될 게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매몰됐던 금권 정치가들이 돈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으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분노가 나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여줄 수는 있어도 오래 권좌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의 비관적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2~3분 만에 퇴장... 1분 뒤 바로 선포

개회선언·서명 없이 5분 만에 끝나는 의정관 참석 안해 속기록도 안남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때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만 할 뿐 의결하지는 않는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1분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 순서가 되자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처기업무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한 총리 “한·한 공동국정안 사전에 못봐”

그러나 참석자 발언 요지나 속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 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앞서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날 밤(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날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

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는 이날인 4일 오전 4시27분부터 4시29분까지 약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17인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11명 중에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3인이 불참했다. 대신 계엄 선포 회의에 불참했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을 받

고,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개회·종료선언 같은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3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씀(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며 “이후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그(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의 기록과 속기, 개회·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라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도 “안 했다”고 답했다.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는 “공식적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누가 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계엄법 규정(제5조 1항)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머문 시간은)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선 “저는 본 적도 없다.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 당시까지 못 봤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직권 계엄 국정조사 추진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이날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는 4명과 함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를,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통령 의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희철·김민욱·윤성민 기자

“욕하는 손님 많아” 서문시장 그칼국수집, 대통령 사진 뺐다

젊은층 중심 탄핵 목소리는 커져

“사람(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사진을 내린 건 아닙니다. 속시끼러워서요.”

11일 정오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70대 상인 A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찾았던 곳이다. 이후 가게 곳곳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그가 직접 쓴 ‘대구 시민들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라는 글귀, 친필 서명이 걸렸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 사라졌다. A씨는 사진과 서명을 집에 보관 중이라며 “손님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듣기 싫어서 뺐”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후 마음이 아파 한동안 잠도 못 잤다.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고



1 서문시장 육교 위에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안내하고 있는 청년 유튜버. 2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경서 기자, [뉴스1, 연합뉴스]

말했다. 서문시장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도 ‘성지’라 불린다. 보수진영 ‘현장정치 1번지’로, 윤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했을 정도다. 지난해 서문시장 100살을 기념해 열린 ‘2023 서문시장 100주년 대축제’에는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만난 상인 대부분은 “탄핵은 안 된다”고 했다. 이불을 파는 50대 상인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이 사태까지 오게 한 건 야당이다. 무조건적인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젊은 시민과 상인은 “보수의 심장” 대구의 민심이 변했다”고 했다. 이종현(30)씨는 “지금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구라고 해서 더는 윤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 없다.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상인도

“21세기에 군을 동원한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문시장 육교 위에서 매일 저녁 대구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를 안내하고 있는 한 청년 유튜버는 “서문시장에 와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방송을 진행해도 아무런 해고지를 당하지 않을 만큼 대구 민심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7시 중구 동성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보수의 텃밭이 아니다” “TK 콘크리트가 TK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 등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과 국회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으’가 아니라 ‘이’ 인 말들

가요 ‘황포돛대’는 이렇게 시작한다. “마지막 석양빛을 기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미자는 ‘마지막’이 아니라 ‘마즈막’이라고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노래이다 보니 일부터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싫었다. 그렇지만 그는 평소 말할 때 ‘마즈막’이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글학회가 펴낸 ‘큰사전’(1947~57)에는 ‘마즈막’도 표제어로 실려 있다. 뜻풀이는 ‘=마지막’이다. 그렇다고 ‘마즈막’을 표준어로 인정할 건 아니었다. 저때도 ‘마지막’이 표준어였다. 다만 한쪽에서 ‘마즈막’이 쓰이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옛날 신문들에도 ‘마즈막’이라고 쓴 기사들이 제법 보인다. 근래 들어 나온 국어사전들에는 ‘마즈막’이 경기·충청·평안·함경 방언이라고 돼 있다. 방언에는 우리말의 옛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ㅅ, ㅈ, ㅊ’ 아래에서 ‘-’가 ‘ㅣ’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마즈막’도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조금 헛갈리는 ‘나즈막하다/나지막하다’도 마찬가지로 ‘나지막하다’가 표준어다. 여기서 나온 말 ‘나지막하/나지막이’는 ‘나지막이’가 표준어다. 마뜩잖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ㅣ]로 소리가 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시스’ ‘으시데다’가 표준어가 아니라, ‘부스스’ ‘으스스’가 여전히 표준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K팝의 성공과 착취 소송



정윤재
사회부 기자

지난 6일 JYP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법인이 소송에 휘말렸다. JYP 소속 걸그룹 ‘비취(VCHA)’의 미국인 멤버인 키아라 그레이스 매더(17), 예명 ‘케이지(KG Crown)’가 아동 노동 착취, 방임, 학대, 그리고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케이지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스태프들에게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후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취를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어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취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A2K’로 결성된 한미 합작 걸그룹으로 올해 1월 데뷔했다.

케이지는 “저는 한 멤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식 장애를 유발하고 멤버들을 자해하게 만드는 환경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에 팀을 탈퇴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지금은 계약이 해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업무와 사생활에 대한 극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거의 받지 못한 채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다”며 “제가 받은 대우에 대해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으나, 이는 케이팝 산업에 깊이 자리 잡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세부 내용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K팝 업계의 본질과 그 안에 깔린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한다.

아이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들은 대중의 사랑과 동경을 받으며,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다. 성공을 위해서는 탁월한 외모와 재능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는 K팝 아이돌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기반이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과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그러나 타문화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이 체계가 때로는 낯설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엄격한 기준은 때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더 큰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강압적인 훈련은 개인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진스 멤버 하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팝 산업계 전반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는 아이돌 산업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데뷔를 위해서는 높은 기준과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며, 데뷔 후에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이들에게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추가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또 타문화에서 자란 연습생들에게도 한국식 시스템은 높은 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이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개인의 권리와 복지는 종종 간과된다. 과도한 일정, 불공정 계약, 그리고 건강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K팝 아이돌 산업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시스템과 개인의 노력이 결합돼 있다.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K팝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스타 양성 시스템이 인권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열린광장

74세 알바트로스가 전하는 희망과 경고



안착히
한국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팀장

“그녀가 또 해냈다!”(SHE DID IT AGAIN!). 지난주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위즈덤(Wisdom)이라는 애칭의 알바트로스 새가 하와이 군도에서 다시 알을 낳았으며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첫 문장이다. 모두 대문자로 쓴 이유는, 위즈덤이 야생서식 새 중 세계 최고령으로 올해 무려 74살이기 때문이다.

세계 조류학계는 경사 분위기다. 위즈덤이 마지막 알을 품었던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각종 매체들은 그녀의 ‘출산’ 소식을 긴급 타진하며 올해 처음 만난 수컷이 ‘아빠’라고 보도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짝이었던 ‘아케아카마이(Akeakamai: 하와이어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최근 몇 년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알바트로스가 평생 한 짝과 지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케아카마이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이산(Laysan) 알바트로스인 위즈덤은 1956년 하와이 군도 최북단 미드웨이 환초의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알을 낳던 중 한 조류

학자에 의해 처음 인식표가 채워졌다. 이 종의 수명이 보통 12년에서 40년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위즈덤의 생존은 물론, 그녀가 매년 같은 곳으로 돌아와 70년 가까이 이어온 번식 활동은 기적 같은 일이다.

태평양 한복판 섬의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미드웨이의 바닷가는 플라스틱 용기, 봉지, 라이터, 칫솔, 빗 등 온갖 크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수많은 새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다 숨지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 사용이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를 볼 때 위즈덤은 청정지역이었던 자신의

서식지에 해가 갈수록 밀려오는 플라스틱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6년 전 위즈덤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룬 미국 CBS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마이클 게브슨은 “위즈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녀가 수십년간 목격해 온 환경 파괴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알바트로스가 위즈덤처럼 오래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운이 좋아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위즈덤은 플라스틱의 위험뿐 아니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미드웨이를 덮친 쓰나미를 비롯해 인간이 만든 온갖 위험을 지켜보며 생존해왔다. 이 희망의 상징이 언제까지 태평양 섬의 환초를 지키며 알을 품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워 보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위즈덤이 낳은 알이 수 주 후 무사히 부화하기를 속속여가며 기다리고 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9) 정치자금 딜레마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나” 술 먹던 노무현 평평 울었다

“당신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에게 돈은 무엇이였을까. 몹시 가난하게 태어났으므로 온 집안이 돈 타령 속에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절절하게 경험했던 노무현이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돈이 원수였을 것이다. “돈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그러한 집안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온갖 불만,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식, 심지어는 부자에 대한 적개심 또한 생겨날 수밖에 없었음을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 돈 걱정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노무현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유롭게 자라고 머리 좋고 우수한 모범생으로 칭찬받아 가며 좋은 대학에 들어간 노무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다고 치자. 과연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겠는가.

물론 가난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할 순 없다. 노무현도 돈을 밝혔던 때가 있었다. 판사를 잠시 하다가 집어치우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것도 여러 이야기가 있으나 따지고 보면 금전적 동기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3년간은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붙였고, 봉하마을의 가난을 뒤로하고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렸다. 부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요트도 탔다. 잘 나가는 변호사로 꼽혔다. 사건 수임을 위해 고도 관한테까지 때마다 인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보면 노무현이 ‘돈을 밝힌’ 시기는 이때 잠시뿐이었다. 어찌 어찌 해서 ‘부림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는 다시 돈과 멀어진다. 법률사무소 운영은 파트너 변호사인 문재인에게 거의 맡겨놓다시피 하고, 돈 안 되는 인권이니 노동사건 변호 쪽에 전념했다. 하도 가난해서 그렇지, 원래 노무현의 DNA는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경제적 풍요보다 부조리 투쟁으로

돈이 없어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어도, 그에 맺힌 마음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그 가치는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도리어 경제적 풍요가 지배하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상대로 저항하고 투쟁해 나가야겠다는 쪽으로 급속하게 변해 나갔다. 한동안 입어 왔던 품에 맞지 않는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그러나 정치를 시작하면서 다시 돈이 필요해졌다.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다. 자본가들의 횡포에 대항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변호사를 버리고 정치에 뛰어든었는데, 막상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의 정치자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 명제는 정치인 노무현을 내내 괴롭힌다. 돈이 개입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는데, 막상 자신이 필요



2002년 대선 운동 당시 노무현 후보가 ‘희망대저’ 저금통을 들고 있다. 노 후보는 기존 정치권의 모금 방식을 거부하고 노사모 중심의 자발적 후원 운동을 벌였다. [중앙포토]

한 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술 한잔하며 “돈 없이는 정치할 수 없는 건가”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노무현이다(서갑원의 말).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했는데, 노무현 체질상 영 맞지 않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세비(봉급)라도 있으니 그러저럭 꾸려가지만, 낙선하는 경우에는 즉각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벌어서 쓰자”였다. 물장수를 시작한 것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물장사를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노무현도 생수 장사에 손을 대서 그 망신을 당해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고, 소자본으로 땅속 물을 파내서 팔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사업 구조라는 점에서 달력 뛰어난 것이다.

결과를 쫓파 망했고, 측근 안희정과 후원자 강금원만 욕살이를 시켰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노무현 책임이었다. 자력갱생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한 물장사를 망해 먹으면서 노무현은 혼쫓이 났다. 두고두고 후회했다. “다음 대통령한테 절대 물장수는 하지 말라고 하겠다”는 게 그의 단골 농담의 하나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돈 걱정은 정치자금의 합리적 조달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역시 암암리에 정치자금을 받아 온 정치인이었으니 오랫동안 유지돼 온 관행을 모를 리 없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도 재벌들이 몰래 보내오는 돈을 요긴하게 받아 썼다.

‘희망저금통’ 사례 - 정치자금 제도화 고민

물론 지지자들이 돼지저금통을 털고 노사모가 심시일반으로 보내오는 합법적 정치 성금이 지니는 의미를 금액으로 평가할 순 없을 것이다.

깨끗한 정치 위해 정치 시작했는데 돈 조달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비리 드러나면 집안 망하게 하겠다” 경고했지만 끝내 박연차 사건 터져



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재벌들이 제공하는 돈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었다. 결국 기업 돈줄이 역시 중요한데, 무명의 정치인에게 기업들이 쉽게 뭉치 돈을 줄 리 없다. 그러나 내놓고 지원했던 기업인들이 박연차·강금원 등이었다. 노무현도 이들의 돈은 합법 여부를 떠나 부담 없이 받아 썼다.

노무현 스스로는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어쩔 수 없는 관행일 뿐,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정치인이 받는 돈은 ‘썩은 돈’이고, 내가 받는 정치자금은 일종의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대통령 선거 때에도 자신이 재벌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가장 적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위했다.

노무현은 내색은 안 했어도 취임 직후 SK 대선 자금 사건으로 가시방석이었다. 이회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받은 것

은 사실이었던 때문이다. 더구나 돈을 받은 당사자가 ‘영원한 집사’ 최고술이었으니... 급기야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려는 전화를 걸었다가 잠잠게 무안을 당하고 만다. 청와대 호출 자체를 거부당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겪은 참외였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사과 성명에 보태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통령 재임 내내 노무현은 돈 문제에 대해 엄격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엄포도 살벌했다.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집안이 망하도록 하겠다.”

왕조시대의 멸문조치를 연상케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극언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골칫덩이 동생 전경환과 재벌들이 있었듯이 자신에게는 형님 노건평과 박연차 회장이 있었으니 말이다.

축재 없었지만 가족 관리 실패

그래도 형님 스캔들을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금전적 또는 친인척 비리는 거의 문제 될 게 없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신세 진 사람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봐줘야 할 정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덕도 봤다. 노무현 라인에 즐겼던 사람도 많지 않았다. 아무튼 노무현의 인생에 있어서 축재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돈의 악령이 퇴임 후 덮쳐 왔다. 그는 가정 경제에는 아예 무심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나 생활비를 포함한 집안의 대소사 처리는 부인 권양숙의 영역이었다. 권양숙은 돈이 필요해도 남편과 상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상의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다. 허물없이 지내는 박연차와 상의하거나 시아주버니 노건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었다. 아내와 박연차 사이에 오가는 돈을 노무현은 알지 못했다. 부러 모른 척했는지 모른다. 설사 무슨 김새를 눈치 채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더라도 아마도 권양숙은 “당신은 몰라도 돼요”라고 했지 않았을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총무비서관이자 절친이기도 한 정성문이 알아서 돈 문제를 챙겼고, 노무현은 알리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끝에 퇴임 후에 박연차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다. 거액의 달러가 권 여사에게 전해졌고, 그 돈이 학교 등록금도 아니고 미국 거주를 위한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쓰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언론에 밝혀지자 노무현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누구보다도 돈을 경계해 온 정치 인생이라고 자부했던 노무현이었던, 결국 막판에 이르러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만 셈이다.

그 돈이 달러였든, 원화였든 돈은 원래 노무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돈’의 ‘니(尼은)’ 받침자를 거꾸로 하면 ‘독(毒)’이 되는데, 결국 노무현한테 돈은 독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 이장규·손병수·박유기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르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시설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는 길 말고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지만, 그 이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론을박하며 해매는 사이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급류를 타서 조만간 체포·구속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자신도 어떤 게 '질서 있는 퇴진'인지 합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야당과 국민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달라고 설득할 순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14일 2차 탄핵안 투표에서 깨끗이 탄핵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세우는 게 극도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당의 책무일 것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TF가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4~5월 대선'을 정국 수습책으로 검토한다

근 하나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광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문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라도 대통령이 국회의사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적 해석이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엄청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형법 88조는 내란 수괴의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

하지 못한다. 탄핵이라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있는데 말이다. 설령 내년 2~3월 퇴진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한덕수 총리 주도로 국정이 운영된다고 해도 한 총리를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애매하다. 국군통수권과 정상 외교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마음이 달라져 자신이 다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하면 어찌할 것인가. 심각한 국정 혼선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매몰돼선 안 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여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침묵을 지키는 상당수 의원이 탄핵 불가피로 돌아섰다고 한다. 어차피 국민의힘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조기대선은 각오한 것

아닌가. 이미 독은 무너졌다. 더 시간을 끌면 '윤석열의 자멸'을 '보수의 자멸'로 확대하는 모양밖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가라앉기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혼란을 정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장관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 행안부·국방부·여가부 장관이 공식인 가운데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오늘 처리한다. 또 한 총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현 장관들은 차기 정부 초반까지 재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공세 차원에서 죄다 직무를 정지시키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처의 업무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자해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 난망, 여당도 탄핵 참여가 현명 야당은 국정 마비 초래할 장관 탄핵 자제해야

이 와중에 당권 욕심 내는 친윤계, 부끄럽지도 않나

천대엽(대법관) 범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덕분에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150여 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공수부대가 본청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담을 넘고 군경에 맞서면서 본회의장으로 돌진했다.

긴박했던 국면에서 별다른 힘을 보태지 않은 장본인들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다. 상당수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 모였다. 계엄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 결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필사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계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18명이 계엄 해체에 힘을 보탤기에 국민의힘은 '계엄

공범'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계엄이 해제되니 친윤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을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윤상현 의원)는 궤변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섰다.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추 전 원내대표 지휘 아래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 전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과 친윤계 의원들은 또다시 친윤인 권성동 의원을 후임자로 밀고 있다. 연일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행적이 폭로되는 와중에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니,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맞서 4선인 김태호 의원을 미는 친한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여론의 외면을 받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우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권 싸움에 몰두하는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난맥을 방조해 왔던 친윤계가 염치도 없이 다시 나서는 것이 과연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나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난 9월 '계엄 괴담과 국민 모독'이란 칼럼을 썼다. 야당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란 내용이였다. 칼럼은 계엄이 불가능한 이유로, 우선 헌법 77조 5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70석)만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첫째로 굳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로 국제사회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밤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다음은 모두가 아는 대로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은 담을 넘어가며 필사적으로 국회에 모였다. 4일 새벽 1시 국회는 출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것으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무효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투입된 MZ세대 군인들은 군 지휘부의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았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았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갔다. 그러곤 군경과 대치하며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군 버스 앞에 드러누웠고 장갑차를 가로막았다. 휴대폰으로 현장을 생중계했다.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속보를 띄웠다. 미 국무부는 즉각 "중대한 우려를 갖고 한국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커트 캠벨 부장관)고 밝혔다. 날이 밝자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완전히 실패했다. 칼럼 내용대로였다. 사실 계엄 불가 사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상식적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성이 마비돼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계엄 선포가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말이

다. 그는 그날 밤 의원들이 국회로 속속 모여들자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고교 후배인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와 구금시설을 준비 시켰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됐더라면 사회는 암흑천지가 됐을 것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8일, 그사이 벌어진 일들은 국민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체제'의 등장, 내년 2·3월로 넘어가는 퇴진 로드맵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들이 튀어나왔다.

가장 기괴한 것은 위헌적 계엄을 실행한 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는 것이다. 국군통수권도 그에게 있다. 그는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는 자격 상실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다. 무장한 최정예 계엄군을 국회로, 선관위로 보냈다. 그

비상계엄, 국민 목숨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망가뜨려 이미 대통령 자격 잃어버린 것

들이 시민과 충돌하고 총탄을 쏘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공포스러운 일이다. 30여 년의 '문민통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를 저버렸다. 국회 봉쇄, 계엄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출판 통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짓밟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 경제를 위협에 빠뜨렸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세계가 선망하던 대한민국이 졸지에 기피 국가가 됐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여차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태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다.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향하면서 나라는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국가 위상은 수직 추락하고 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가) 제재시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안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창립23주년
KOBE JEWEL GROUP

반지천국 강남세공 프리미엄 보석 대거출시!

Rings Heaven

2024 연말 총결산

'무조건 털어'

보석비소!

30%~ CLEARANCE 최대 70%



2024 창립 23주년 기념
프리미엄 고베펠 아코야진주 기획전

아코야 진주 신제품 대거 출시!

지구온난화로 인해 프리미엄아코야진주
가격이 폭등했지만 프리미엄고베펠에서는
종전의 믿을수없는 특별가격으로 선보입니다.

한줄부터 두줄 세줄짜리 시중에 찾기 힘든 디자인의
프리미엄 아코야진주를 고베펠 프리미엄에서 만나세요

50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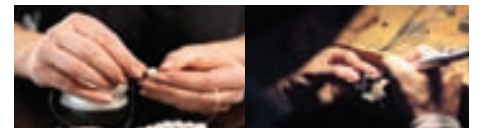
진주제품을 비롯해 홍산호, 각종 칼라스톤제품
최대 5000여점이 전시판매됩니다. 경제적인
가격대의 '반지천국' 브랜드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Helen Aiko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애프터 서비스
GIA 진주감정사 배치



진주를 잘모르시는분도 GIA 진주 전문 감정사가
행사장에서 고객님들의 스마트한 진주구매를
도와드립니다! 판매 후 사후 고객만족
애프터서비스는 23년 고베주얼그룹이 내세우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장인정신으로 한뼘한뼘
프리미엄 한국 강남세공



한국 강남에 위치한 세공소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은
한인 여성들의 입맛에 맞는 디자인으로 큰사랑을
누욕부터 웨이까지 캐나디까지 큰사랑을
받고있습니다. 프리미엄 천연양식진주 및 인공핵진주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수없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2024
신제품
대거출시

진주 귀걸이 / 펜던트 / 반지 / 브로치 등
2024 가을맞이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
인기짱!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88볼코너**

버지니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12월 16일(월)-18일(수), 단 3일간

장소: 타마 여성의류매장내 특설매장

주소: 7224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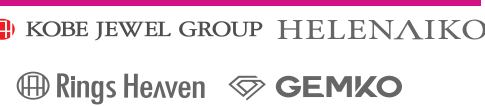
볼티모아 행사일정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20일(금), 단 2일간

장소: 베세토 백화점 지하 1층 연회장 (H마트옆)

주소: 822-828 N Rolling Rd., Baltimore, MD 21220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합니다.



홈페이지: Kobejewelgroup.com

젤코 고베펠 프리미엄 N.Y 뉴욕 플래싱 지점
150-24 Northern Blvd G12, Flushing NY 11354

고베펠 프리미엄 LA 코리아타운플라자 지점
928 S Western Ave #305 Los Angeles CA 90006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DEC. 12th - DEC. 19th, 2024

Pulmuone

Udon Noodle Soup with Fried Tofu

**풀무원
가락 유부 우동**

32.8 OZ

~~REG. \$12.99~~

\$7.99



**SSUEIM
Hyvinkaa Dinnerware Set for 1**
쓰임 휘빈카 1인 식기세트
WHITE/BLUE
(RICE BOWL+SOUP BOWL+2 PLATES+MUG/SET)

~~REG. \$29.99~~

\$1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December 12,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세금 적고 일자리 많은 도시 선호도 높다

US뉴스 선정 최고의 은퇴지 7곳

미국인들이 은퇴 후 살고 싶어 하는 도시는 어디일까? 최근 US뉴스(usnews.com)가 전국 15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은퇴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은퇴지를 선정했다. <표참조>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 행복도, 집값, 물가, 고용 시장, 은퇴자 세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들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경제적 요인보다 행복도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 그 결과 작년까지 최고의 은퇴지가 주로 북동부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US뉴스가 선정한 최고의 은퇴지 7곳을 알아봤다.

경제적 요소 보다 행복도 최우선 집계 공기 좋고 문화 인프라 많은 곳도 인기

▶1위 플로리다 네이플스
-인구: 12만2578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36%
-월 평균 모기지: 2367달러
-월 평균 렌트비: 1738달러
플로리다의 낙원이라 불리는 네이플스(Naples)가 올해 최고의 은퇴지로 선정되었다. 네이플스는 도시와 자연환경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시니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활동적인 삶과 여유로운 삶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도시는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2위, 고용시장 부문 4위, 세금 부문 6위를 차지했다.

▶2위 버지니아 비치
-인구: 46만69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
-월 평균 모기지: 2079달러
-월 평균 렌트비: 1805달러
버지니아주 소재 해안 도시인 버지니아 비치(Virginia Beach)는 깨끗한 공기와 세계적 내내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이곳은 주민 행복도 8위, 대기질

4위,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2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은퇴지임을 입증했다. 또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완벽한 은퇴지로 꼽힌다.

▶3위 뉴욕
-인구: 880만4330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16%
-월 평균 모기지: 3098달러
-월 평균 렌트비: 1910달러
뉴욕(New York City)은 은퇴 후에도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니어들에게 이상적인 은퇴지다. 또 뉴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또 일자리 부문에서 22위에 랭크돼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도 적합하다. 생활비가 비싸지만 주민 행복도 6위,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8위를 차지했다.

▶4위 플로리다 새러소타
-인구: 8만2472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34%
-월 평균 모기지: 2009달러
새러소타(Sarasota)는 이번 조사에서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위를 차지하며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떠올랐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높은 주민 행복도가 이곳을 최고의 은퇴지로 선정케 했다.

▶5위 아이다호 보이시
-인구: 27만7498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16%
-월 평균 모기지: 1693달러
-월 평균 렌트비: 1398달러
보이시(Boise)는 고용시장 부문 16위로 조사 대상 도시들 중 2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풍부한 문화 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뉴욕은 최고의 은퇴지 3위에 선정됐다. 사진은 뉴욕 센트럴 파크 전경. [unsplash.com 제공]

전국 은퇴하기 좋은 도시 탑 10

순위	주/도시명	65세 이상인구비(%)	모기지/렌트비 중간값(달러)
1위	플로리다 네이플스	36	2367/1738
2위	버지니아 버지니아 비치	15	2079/1805
3위	뉴욕 뉴욕시	16	3098/1910
4위	플로리다 새러소타	34	2009/1659
5위	아이다호 보이시	16	1693/1398
6위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12	1923/1432
7위	플로리다 잭슨빌	15	1599/1296
8위	앨라배마 헌츠빌	16	1501/1237
9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11	1788/1495
10위	인디애나 포트웨인	15	1212/1017

이주현 객원기자
▶4면 '은퇴지'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산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www.부동산학교.com
6주 숙성반
www.뉴스타부동산.com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피어팩스 크로스 스트리트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백도어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넓고 이쁜 집, 대우주택, 넓은 뒷뜰	1 \$630,000 Sykesvill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홈, 아주 멋지고 고급, 잘 꾸민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넓고 멋진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집	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3 \$1,02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뒷뜰, 마루바닥	4 \$1,32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넓은 뒷뜰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새해 시로 돈 벌고 싶다면... 시로 돈 버는 기업을 사라”

2025년이 코앞이다. 미국 월가에서 보는 내년 글로벌 투자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JP모건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확산 ▶미국 대형 기술주(빅테크)의 실적 증가 ▶신흥국의 저렴한 주가 등을 꼽았다. AI 산업의 경우 성장의 수혜가 인프라·부동산 등 다양한 부문으로 퍼지면서,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신흥국의 반도체 기업들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계속 성장하는 미국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면서, 가격이 싸진 신흥국으로 자산을 분산하라는 조언이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JP모건자산운용의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JP모건자산운용의 투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IT기술이 여전히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케리 크레이그 글로벌 시장 전략가, 조던 스투어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프리 왕 투자스페셜리스트. 김중호 기자

중앙일보 ‘머니랩’은 JP모건자산운용의 해외 투자 전문가 3명을 한 자리에 모아 내년 증시 전망을 살펴보았다. 참석자는 케리 크레이그 글로벌 시장 전략가, 조던 스투어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프리 왕 투자부문 스페셜리스트다.

이들은 내년에도 미국 빅테크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다. 스투어트 매니저는 “매그니피센트7(M7: 애플·아마존·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엔비디아)이라 불리는 7곳 뿐만 아니라 (S&P500에 속하는) 나머지 493개 기업도 내년에 이익이 평균 1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레이그 전략가 역시 “현재 미국 빅테크가 고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I의 발전이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선 신흥국의 매력에 커졌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APAC)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

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가장 많이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치, 안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건널 때 해외 자금이 유입될 여지도 가장 많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전략가는 “코스피는 이미 최악의 트럼프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고 주가 상승 기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이 있다.

조던 스투어트: 트럼프에게 관세는 정치적 도구다. 보복관세를 포함한 무역협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우호적 공급망 구축’(Friendshoring)과 ‘근거리 공급망 구축’(Nearshoring) 같은 전략을 수년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설령 관세가 크게 인상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진짜 우려되는 건 관세 자체보다 기업 신뢰도와 투

자 위축이다.

케리 크레이그: 핵심은 관세가 어떤 규모로 적용되느냐다. 예를 들어 중국에 60%, 다른 나라에 10%를 부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포괄적인 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미 수많은 무역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나 제2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제프리 왕: 트럼프의 모든 공약이 ‘법’으로 제정되진 않을 거다. 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무역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 법률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더 큰 반대에 부딪히거나 좌절될 수 있다.

이미 많이 오른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스튜어트: M7 기업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이 있으며, S&P500에 속하는 나머지 493개 기업에서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들 미국 대형주는 내년도 연간 약 15%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론 빅테크주 전반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는 시기가 올 수 있다.

크레이그: 현재 M7 기업이 고점을 찍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다섯 곳은 이미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던 것은 기업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만약 시장에서 단기적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기술주에 다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도 AI가 산업과 증시를 주도할까.

크레이그: AI 초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대형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엔비디아 등 핵심 반도체 기술 기업이 주로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 인프라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도체 제조업체, 데이터센터, 전력 회사, 부동산 등

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한 기업의 자본 지출이 다른 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AI 생태계 전반으로 경제적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스튜어트: 자본시장에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주목해 온 건 주요 기업들이 AI 관련 인프라와 반도체 생산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꼽는다. 이제 이런 투자가 실제로 의미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AI로 실제 돈을 버느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거다. 만약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왕: 중국을 제외한 북아시아 시장(대만과 한국 포함)은 글로벌 AI 기술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 덕에 올해 제조업 사이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낮지만, 대만은 상승세다. 두 시장 모두 내년 APAC 내에서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McLean, VA SOLD	\$900,000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6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재가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주재원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재가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아파트 마약’ 취한 한국 재개발, ‘대장동’을 버려야 산다

“인생 두 번 사는 느낌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분들도 많고 동의 안 할 분들도 있겠지만, 2000년대 초 박사 하러 일본 가서 보고 겪었던 게 20여 년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리바이벌(유행)되는 게 워낙 많아서요. 제 전공인 도시개발은 물론이고요. 지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후 일본 역시 청년들의 취업 방해 문제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만큼 대졸 취업률이 치솟았지만요. 도심 재개발 얘기를 하면서 왜 청년 실업률 문제를 꺼내놓고요? 도시개발은 내가 발붙이고 사는 우리 동네의 문제와 동떨어진 채 이뤄져선 안 되지 때문입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여러 사회문제 해결책까지 제시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롯데기 힐스 등 도교를 매력적으로 바꾼 ‘힐스’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 모리빌딩(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 한국 지사장을 지낸 박희윤(56) 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 얘기다.

한국에서 재개발이란 아파트든 오피스든 상업시설이든, 그저 신축 건물 빠르게 분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인허가를 둘러싸고 업자와 정치인·관료가 이권과 특혜로 엮여, 돈 놓고 돈 먹기식 불공정 게임을 벌이는 그들의 세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지난달 28일 단 하루에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김인섭씨(이재명 대표 선대위원장 출신) 징역 5년 확정판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 등 ‘재개발=비리’ 편견을 강화하는 뉴스가 쏟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도교는 다르다. 지난해 오피스빌딩 아자부다이 힐스 등 대규모 도심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도쿄 시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도쿄를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도쿄는 뭐가 달랐을까. 『도교를 바꾼 빌딩들』의 저자이자, 모리빌딩 노하우를 한국에 접목하고 있는 박 본 부장을 지난달 15일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만났다. 경험을 통해 나온 인사이트뿐 아니라 한국인 첫 모리빌딩 직원이 된 사연 등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를 그의 시각에서 정리했다.

IMF 지옥, 기회로 만들다

경남 마산(현 창원시) 촌놈. 그것도 전자계산학과 출신이 어떻게 모리빌딩이라는 일본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모리빌딩 한국지사장 출신 박희윤 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을 만났다. 김성룡 기자

여전히 ‘빨리’가 전부인 서울 35년간 수천 번 설득한 도쿄 부동산기업 철학이 도시바꾸 비전의 차이가 미래를 좌우

유명 디벨로퍼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출발은 국민학교 때 다섯 살 위 형이 가져온 ‘사회와 부도’였다. 세계 지도를 본 순간 사랑에 빠져 매일 도화지 퍼놓고 지도 속 지형을 따 도시를 그렸다. 관련 전공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학력고사 망치고 간 창원대엔 도시 관련 전공이 없었다. 일단 취직 잘 되는 과를 택했지만 늘 도시재생에 대한 갈증과 결핍이 있었다. 러시아-일본 초차지 시절 근대적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져 아주 예뻐던 마산 적산가옥에서 태어났는데, 좋았던 동네가 점점 망가지는 걸 보기 괴로웠다. ‘도시를 살린다’는 명제에 계속 관심이 간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다. 특히 경남은행 입사 첫 해인 1993년 휴가가 딱 3일이라 배 타고 2시 50분이면 닿는 규슈 지방을 여행한 영향이 컸다. 인구(60만)는 옛비슷한데 쇠락한 마산과 달리 인프라와 디자인 등 개발 수준 높은 구마모토·나가사키 등 일본 지방도시는 큰 충격이었다.

입사 5년 차 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맞았다. 구조조정 탓에 길바닥에 나앉은 은행원이 많았는데, 난 이걸 기회 삼았다. 5년 차까지 연봉 3년 치 주며 명퇴 신청을 받길래 오직 꿈만 좇아 사표를 던졌다. 돌이켜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막무가내로 하버드에서 온 한국 최고의 도시설계 전문가 고(故) 최막중 당시 한양대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게 먼저 제안해 최 교수 연구실에 들어갔다. IMF 한파로 다들 당장 먹고살 궁리하던 시기에 서른 넘어 뜬구름같은 도시계획 공부한다는 것도 남들 보기엔 뜸약했을 텐데 더 황당한 짓을 했다. 고향 마산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도시재생 전공을 하는데, 지명의 기원 등 정작 도시스토리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도시역사 분야 최고의 대가인 최중현 교수에게도 받아달라고 했다. 늦깎이 대학원생이 터무니없이 ‘교수 양다리’를 한 거다. 다행히 두 분 모두 품이 넓었다.

규슈의 기억이 강렬했기에 석사 후 일본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도시역사·도시재생·도시개발 셋 다 아우른 사토 시게루(75) 와세다대 교수(도시지역연구소장)에게 받아달라고 했다. 일본어 한마디 못 했는데, 어학원 기초반부터 고급반까지 동시에 수강 신청해 6개월 만에 확는 일본어를 장착해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모리 회장과의 운명적 만남

모리빌딩과의 인연은 우연히 왔다. 와세다 도시지역연구소(박사 과정) 시절 최막중 교수에게 연락이 왔다. 신도립 개발을 청하려는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이 두 번 거절당한 끝에 모리 미노루(2012년 작고) 모리빌딩 회장과 만나는 자리에 통역 겸 조연해줄 전문가로 동석해달라는 제안이었다. 배석 자리에서 ‘와세다 연구원’ 찍힌 명함을 주니 모리 회장이 “신도립이 어떤 땅이냐”고 물었다. 밥값은 해야겠다 싶어 “잠재력 높은 데 낙후된 땅이다. 모리빌딩 DNA가 뭐냐. 잠재력 발현 안 된 동네를 제대로 개발하고 운영해 동네를 바꾸는 회사 아니냐”고 했다.

미팅 당일 모리빌딩 임원으로부터 당장 그날 저녁에 보자는 연락이 왔다. 그는 대뜸 “모리빌딩에 들어와서 한국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렇게 모리 회장을 처음 만난 날 ‘모리빌딩 도시기획’에 입사했다.

이날 내가 한 얘기는 모리회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모리빌딩은 잠재력 있지만 낙후된 지역의 주민과 정치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이들을 설득해서 결국 동네를 바꾼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유명하다. ‘힐스’ 시리즈가 잘 보여준다. 일본 최초의 민간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아크 힐스(1986)는 19년, 영국 천재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아자부다이힐스(2023)는 무려 35년이 걸렸다.

난 도쿄 도심 재개발 사업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롯데기 힐스(2003) 성공 후인 2006년 입사해 2018년까지, 그것도 도라노 힐스(2014-2023)나 아자부다이힐스같은 도쿄 도심 사업이 아닌 한국 관련 컨설팅 업무를 했다. 하지만 모리빌딩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도쿄를 바꿀 수 있는지 비결을 알 수 있었다. 비결이 라키보다 기업 철학을 배웠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수천 번 만나 설득하며 3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눈앞의 돈을 좇지 않고 내가 사는 도시문제를 해결해 한층 더 살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장기 수익을 올린다는 비전이 있기에 가능했다. 돈과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가령 ‘직장은 도심, 주거지는 외곽’이라는 고도성장기 오피스빌딩 모델이 지옥철 같은 사회문제를 만들었다는 반성이 먼저였다. 그래서 일본 최초 직(職)-주(住)-락(樂) 복합개발인 아크 힐스가 나올 수 있었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을까.

스튜어트: 한국 증시는 신흥시장으로서 추가 수익률, 즉 ‘알파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 투자를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흥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게 된다면 특정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크레이그: 이미 한국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 만약 예상보다 (트럼프발)관계 영향이 적다면,

또 최근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한국을 떠났던 외국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다른 증시에 비해 매력적이고 주가 상승 기대치도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전망에는 최근 한국의 정세

혼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돌발 정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가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비롯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들 전문가의 진단을 종합하면, 내년 한국 증시는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해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는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배정원 기자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길로우 프라이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50개 단지를 13개 구역으로 통합... '저글링'이나, '두더지 잡기'냐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부동산전문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도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3만6000가구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 안에 개발 밀그림인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광파르를 올리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첫 입주 후 30년 만에 환골탈태를 시작하는 선도지구 사업은 대역사다. 200만㎡ 부지의 50개 단지 3만6000가구(대부분 아파트)를 헐고 13개 구역으로 통합해 1만9000가구 늘린 5만5000가구 정도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10만4000가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 수다. 총 사업비가 3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비가 22조원이었다.

일산 절반 주택 짓는 30조 대역사

성공적인 사업의 관건은 사업성이다. 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추가분담금을 말한다. 추가분담금은 사업비에서 주민 이외 일반에 판매하는 일반분양분 수입을 뺀 금액이다. 주민이 재건축하기 위해 내놓는 기존 집(대지지분 포함)에 추가로 내는 돈이어서 추가분담금이라고 한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조합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다. 일반분양수입을 결정하는 일반분양가가 추가분담금을 좌우한다. 1기 신도시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는 대략 3.3㎡당 4000만원을 사업성 분기점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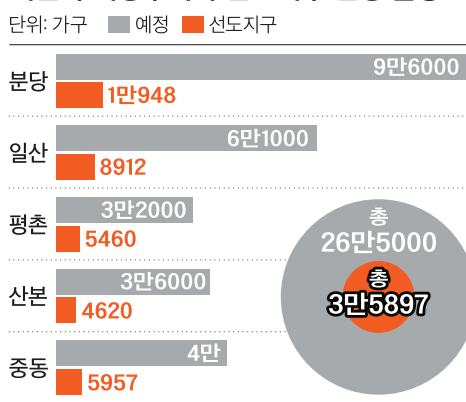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기 신도시는 고령층이 많아 추가분담금 부담감이 크다"며 "2억권이 넘어가면 사업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도지구 선정 바람을 탄 기존 집값 상승세에 주민들이 속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반감기만 한 일은 아니다.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기여금 증가로 분양가 상승이 고스란히 사업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의 일부로 산정하는 대지지분 땅값이다. 분양 무렵 감정평가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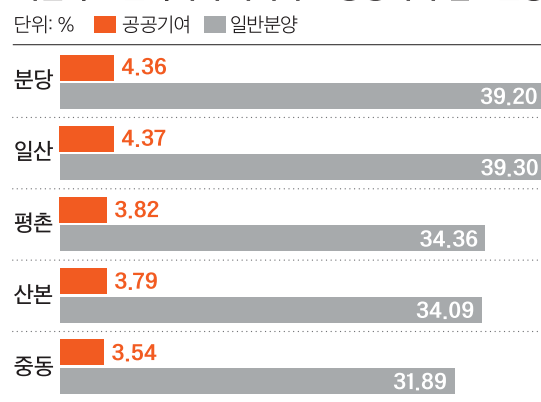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26만5000가구) 7지구 중 하나인 3만5897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사진은 전체의 15%인 8912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재건축하는 일산. [사진 고양시]

재건축 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선정 물량



자료: 국토부, 업계 종합

재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공공기여·일반분양



*용적률은 기준용적률로, 조합원 주택 크기는 변함 없는 1대1 재건축 기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3.6만→5.5만 가구 변신 대역사 공공기여 등 사업성 저하 요인 최대 6개 단지 이해 조율도 변수

결정되는데 기존 집값이 오르면 땅값도 상승하는 것이어서 공공기여금이 늘게 된다.

분당은 추가 공공기여금 내야

특히 분당의 공공기여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 선도지구 선정 평가항목에 포함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점수가 부지면적 대비 비율에 따라 최고 6점(5%)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5%를 써냈다면 부지의 5%를 토지나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해 현금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업계는 5%일 경우 추가 공공기여금을 4000만원 정도로 본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본부장은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분당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공공기여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의 숨은 변수가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에 부과되는데 준공 후 현금으로 지자체에 납부한다. 현 정부 들어 대폭 완화돼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 놓을 수 없다.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도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2027년 착공 무렵에 일반분양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증가분인 1만9000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 연평균 분양물량(6만6000가구)의 30%에 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저렴한 3기 신도시나 지난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기로 한 신규 택지 등과 분양 경쟁을 해야 한다. 3기 신도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분

양에 들어가고 2027년 이후엔 신규 택지도 분양 준비에 들어간다. 1기 신도시 중동 주변에 대장지구, 일산 옆에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각각 개발되고 있다. 신규 택지인 대곡지구도 일산 근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분양가가 3기 신도시 등의 상한제 분양가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 재건축 분양가가 3.3㎡당 3500만~4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창릉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대 초반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분양이 서울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서울도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인 서리풀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용산 한남뉴타운 등에서 상한제 '로포' 단지가 나오고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재건축 분양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대지지분은 두배인데 집값은 절반

1신 신도시 선도지구가 분양까지 가는 데에 내 부족한 불안 요인이 있다. 내홍 가능성이다. 여러 개 단지를 합친 통합 재건축이어서 선도지구 구역들의 덩치가 크다.

구역별로 1376~4392가구다. 1000가구가 넘으면 한 개 단지를 이끄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여건이 다른 여러 단지가 통합돼 있다. 구역별 단지가 평균 3.8개이고 최대 6개다. 한 구역 내에 주택 크기가 같더라도 단지에 따라 대지지분이 다르고 몸값이 차이 난다. 3개 단지를 합친 분당 선도지구 한 구역에서 같은 전용 84㎡ 대지지분이 각각 46㎡, 49㎡, 96㎡다. 단지별 건축 기준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 건축연면적 비율)이 각각 194%, 191%, 97%로 달라서다.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사가격은 4억5300만원~9억6000만원으로 최대 배 차이다. 그런데 대지지분이 가장 큰 집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집이 9억6000만원이다. 고층 아파트와 저층 연립, 지하 철역까지 거리 등의 차이가 작용한 결과다. 조합 구성을 두고 단지 간 사업 주도권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정부가 통합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지 간 임원진 분배 등 통합준비에 필요한 절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저글링'과 '두더지 잡기' 사이에 있다. 공중에 던진 여러 개의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내며 다시 던지는 묘기를 펼칠지, 여기저기서 뭉클뭉클 튀어나오는 두더지를 잡는 게임처럼 골치 아픈 문제들을 쫓아다니다 시간을 보낼지 지켜볼 일이다.

▶1번 '은퇴지'에서 이어집니다

또 '저렴한 집값' 부문 7위를 기록해 주민들에게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한다.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은퇴 후 활동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은퇴지이기

도 하다.

▶6위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 인구: 46만9960명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2%
- 월 모기지 평균값: 1923달러
- 월 렌트 평균값: 1432달러

롤리(Raleigh)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하길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로 유명 대학들과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학구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7위 플로리다 잭슨빌

- 인구: 97만7267명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
 - 월 평균 모기지: 1599달러
 - 월 평균 렌트비: 1296달러
- 잭슨빌(Jacksonville)은 낮은 세금, 우수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풍부한 여가 활동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

다. 특히 플로리다는 주 소득세가 없어 시니어들의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더해 22마일 해변, 멋진 골프 코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이 있어 은퇴자들의 여가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이주현 객원기자



NMLS #: 2425871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뉴저지
- * 펜실베이니아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	---	--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2월 **HOT** 리스팅



독점 매물 \$49만불

옥스힐/매릴랜드
MGM 카지노에서 10분거리위치한 싱글홀,
방4개 화 3, 차고 1. 모두 수리된집

17년 부동산 경력의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선정
16년 연속 탑 에이전트의 풍부한 부동산 경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촉을 늘 감지하는 비키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부동산 투자 실수가 없습니다.
셀러, 임대주택 렌트 - 모든 온라인매체에 광고 노출을 제일
많이하며, 빠른시일내에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어 대기 - 센터빌, 페어팩스에 위치한 깨끗한 콘도 매물 찾습니다.



독점 매물 \$68만불

우드브릿지 싱글홀
2005년 지어진 깨끗하고 잘관리된집
방4개 화 4.5 차고 2 렌트도 가능



독점 매물 \$57만불

알링톤 콘도
방2/화 2 모두 수리된집, Clarendon
메트로역에서 1 마일, 펜타곤과 인접집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와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 즉시입주 가능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악착같은 부동산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2025 New Conforming Loan Limit

2025년 새로운 컨포밍 용자 한도 (Conforming Loan Limit)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현재 766,550달러에서 806,500달러로 다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팬데믹을 지나오던 2021년 말미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컨포밍 용자한도는 상향조정되어왔다.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이어서 2025년도를 앞두고 또 다시 한 번 더 컨포밍 용자 한도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부터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주택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상승하는 집값에 따라 용자 액수 또한 그에 상응해서 커지다보니 적절하게 뒤따른 시장조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카운티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장가격들을 반영해서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Conforming High Balance 용자한도 또한 상대적으로 충분히 인상됐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라우든·프린스윌리엄·몽고메리·프린스조지스 카운티

등의 Conforming High Balance 한도금액 또한, 1년 만에 다시 기존의 1,149,825달러에서 1,209,750달러로 인상됐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이어지는 이번 컨포밍 용자 한도 인상은 그 시사 하는바가 적지않다.

팬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주택 가격으로 인해 점보용자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많아지고 사실상 그 심사와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점보용자에 해당되는 대상 주택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이번 한도 인상 조치로 인해 이러한 점보용자를 피하고 보다 정확화된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비교적 수월한 컨포밍 용자를 얻을 수 있는 해당 모기지가 늘어나게 되는, 즉 용자 용이성이 조금 더 대중화 되었다는 면에서 주택용자 시장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만큼 높은 가격대의 주택 거래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쉽게 말해 이제는 150만불이 넘는 가격의 주택도 20% 정도의 다운만으로 그 심사와정이 까다로운 점보 용자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컨포밍 용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다소 주춤하는 겨울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거라 본다. 더군다나 최근 이자율의 상승 모멘텀 또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듯한 분위기에서 장기 모기지 금리가 다시 주춤하면서 하락 반전을 기대하는 이즈음 발표된 이번 컨포밍 용자한도 인상조치는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 넣는 희소식으로 기대된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부동산 가이드

주택 가격 동향

부동산 전문회사인 레드핀에 따르면 주택 10채 중 거의 1채인 8.5%의 주택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레드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엔 고작 10채 중 2채 미만의 주택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유지했었으나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76%까지 상승했고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8월엔 8.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11월에 발표된 CNBC 보도에 따르면 전역에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점유율이 가장 높은 10개 대도시 중 1위는 캘리포니아 아주 샌호세 지역으로 무려 해당 지역의 72%에 달하는 주택들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샌호세 지역의 26만7751채가 100만 달러 넘는 주택 수이고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139만 34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2위가 샌프란시스코, 3위 로스앤젤레스, 4위 샌디에이고, 5위 시애틀, 6위 보스턴, 7위 뉴욕, 8위 워싱턴DC, 9위 덴버, 10위가 마이애미로 알려졌으며 1위부터 5위가 모두 캘리포니아 지역을 포함한 서부해안 지역인 것으로 보도됐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전체 거주 주택 중 36.5%에 달하는 79만 7553채가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86만 72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처럼 100만 달러 이상의 거주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6개 카운티에 현재 매물로 마켓에 나와 있는 싱글패밀리 하우스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지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자

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봤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싱글패밀리 하우스 전체 리스팅 수 8020채 중 64%에 해당하는 5152채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리스팅되어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리스팅된 2157채 중 87%에 해당하는 1870채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가주 6개 카운티 중 가장 높은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가 단독주택 리스팅 수 725채 중 67%에 해당하는 482채가 100만 달러 넘는 매물로 나와 있고,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3599채 중 57%에 해당하는 2054채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전체 단독주택 리스팅 수 5919채 중 24%인 1400채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4982채 중 고작 10.5%에 해당하는 516채 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가주 6개 카운티 중 가장 낮은 %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한인타운의 경우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싱글패밀리 하우스의 숫자는 118채이고 그중 88%에 해당하는 104채가 100만 달러 이상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2기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이 작용하면서 주택매매가 소폭 증가하고 모기지 금리의 하락세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면서 내년도 주택시장 매매가 활력을 찾고 가격 상승세도 다소 안정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100만 달러의 고액 주택 수의 증가세도 안정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 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철 WIN Realty & Properties

에스크로 - 비용정산

얼마 전 교회에서 결혼식 행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2세대 결혼식이 그렇듯이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순서가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가족과 하객들 모두 축제로 곳곳이 파티였지만, 사실 그 뒤에 일일이 뒷정리를 하고 점검을 한 사람은 담임 목사였다. 덕분에 다음 날 예배에 참석한 그 누구도 전날의 행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간혹이나 사업체나 주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듯이, 에스크로의 마무리에도 여러 절차로 인해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주택은 물론 커머셜이나 아파트의 셀러가 자신의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거래에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유예하기 위해 1031 Exchange라는 투자장려 제도가 1921년도에 합법화되어 그 후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많은 투자 붐이 일었고 자본주의의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현재 모든 매매 가격이 카운티에 보고되고 그에 정산된 세금이 부과되면서, 거래 내용이 공공 자료가 되었다.

반면, ABC(주류 라이선스)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체 거래는 매매 가격은 물론 카운티와 시 정부에 내는 세금도 모두 비공개 사항인 것이 일반적이다.

에스크로 클로징에 대한 자료가 주 정부 특별히 조세형평국으로 제출되며, 정산된 중고 장비세금을 바이어가 내야 하고, 셀러는 주기별로 납부해온 판매세를 보고함과 동시에 아카운트를 클로징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달 혹은 분기별로 보고하였다고 해도 상관없이 아카운트 클로징 과정을 회계 담당자와 상의

하여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모든 매매 가격에는 가격 산정(Price Allocation)을 하여 보고 해야 하며, 에스크로에서 제출되는 제반 서류들을 정부기관에서 심의하여 세금 증명서(Certificate of Release)를 에스크로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만약 아카운트를 좀 더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는 매매가격 일체를 동결하는 통지를 셀러는 물론 바이어와 에스크로에 모두 통보한다. 주 정부의 세금 계산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위의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가격 일체를 동결 통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셀러가 적게는 1만 달러나 적당한 금액을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매매 가격을 찾아가기를 원하나, 정부의 방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또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셀러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위의 감사 혹은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바이어나 에스크로에서는 짐작이 불가능하다. 셀러 혹은 담당 회계인이 대리인으로서 확인을 직접 혹은 온라인을 통해 그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만약 감사를 거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납부해야 할 세금 고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부(ED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 모든 자료를 검토 후 적절한 통보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들로부터 세금 증명서를 이메일로 에스크로 오피서가 받게 되면서 셀러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완결되면서 깔끔한 마무리로 바이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Realty Maryland 부동산 광고.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현 투척리스트.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lkrigd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US이주투어 **아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 23-24년 새 VVIP 버스운영!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Merry Christmas

북프랑스+벨기에 7일

▶ 12/22 **단 2자리 남음 \$2299** +항공료

파리,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브뤼셀 그랑플라스, 루앙, 옹플뢰르, 몽생미셸 내부관람과 야경(외판) 등 **풀만/힐튼 특급호텔, 몽생미셸 숙박, 화려한 XMAS 야경, 유럽최대명품아울렛/사미리텐 백화점 쇼핑**

이태리 일주 7일

▶ 12/25 **\$1999** +항공료

서유럽 11일 마감

▶ 12/21 **핵심 7일 마감**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40 ANNIVERSARY 꿈결 같은 여행 40년! 아주투어 40년!

아주투어가 올해로 창사 4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1984년부터 한결같이 미주 한인들을 위해 내달려온 40년! 고객 여러분과 함께한 40년은 아주에게는 꿈결 같은 여행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아주는 창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에는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세계일주! 매일 스페셜 투어를 선보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아프리카+ UAE 두바이 16일 \$11499

▶ 2/26/2025 (1차 마감), 10/15 **가이드 동행! 아주관광 단독팀 보장 초특급 사파리 패키지!**

세렝게티 국립공원 & 옹고옹고롱 국립공원 사파리

아랍에미리트, 케냐, 짐바브웨, 보츠와나, 탄자니아, 잠비아, 남아공 7개국 **혁신!! Victoriafalls 직항 2일 절약! 사파리 항공이동 1일 절약!**

빅토리아폭포 최고급 호텔인가 확인!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및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아볼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볼카

▶ 4/28, 5/12 **가이드 동행** **통비치 출발**

▶ 1/23, 2/25, 6/3, 7/15, 8/12, 9/9, 10/2 **가이드 동행** **통비치 출발**

삼바 축제 13일 \$4999

▶ 3/6/25 **\$4999** +항공료

리오, 삼바 챔피언 페레이드입장료, 이과수폭포(브라질/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마, 쿠스코, 마추피추, 나쓰카문경(여행기 포함) 등

항공료가 없는 상품은 LA 출발 상품입니다! 타도시 출발시 항공료가 적용됩니다!

멕시코 크루즈 5일 \$469

▶ 2/2/2025 **인술자 동행! 세금 포함**

2020년 리노베이션한 10만톤, 승무원수 1,108명, 총탑승객수 2,984명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알라스카 8일 \$1499

▶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499** +항공료

세이틀, 주노, 스카그웨이, 클라시어베이, 케지간, 빅토리아 섬, 사이틀

바하멕시코 5일 \$499

▶ 4/28, 5/12 **가이드 동행** **통비치 출발**

통비치, 카타리나 섬, 엔세나다, 통비치

멕시코리비에라 6일 \$549

▶ 1/23, 2/25, 6/3, 7/15, 8/12, 9/9, 10/2 **가이드 동행** **통비치 출발**

통비치, 카보 산루카스, 엔세나다, 통비치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099

▶ 3/26, 10/31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바, 나폴리, 메시나, 발레타(몰타)

웨스턴카리브해 8일 \$1099

▶ 5/24, 6/3 **가이드 동행** **통비치 출발**

포트 로데일, 코즈멜로아탄, 벨리즈 시티, 마이아일, 포트 로데일

피지 힘! 호텔 비교! 가격이 다른 품질이 다릅니다!

남태평양 13일 \$3799

▶ 2/11, 3/18, 4/9 **가이드 동행!**

A 피지/호주/뉴질랜드 B 뉴질랜드/호주

아주 남태평양투어가 명품인 이유?

1.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
2. 최고의 만족도
3. 항공이동으로 버스 타는 8시간 절약
4. 최고급 식사와 맛있는 특식
5. 반딧불 체험
6. 지상의 천국 피지
7. 반딧불 중독 포함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VIP 버스 2. 초특급 5 s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에서 해바라기 2기원비 심명기 무료공연 중

제주+모국일주 10일 \$2199

▶ 수 **\$2199** +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2499

▶ 수 **\$2499** +항공료

순천만 국가정원, 광주, 거제상성호텔 신관, 해남 해상케이블카, 여수오동도, 통영, 거가대교, 제주2박, 부산 국제시장과 전통시장, 해운대, 울산, 경주, 안동 하회마을, 단양, 평창, 오대산, 전나무 숲길, 서울

제주 3일 \$499 ▶ 일 +항공료

서해/제주 7일 \$1499 ▶ 수 +항공료

서해/남해 5일 \$999 ▶ 수 +항공료

동해/제주 6일 \$1299 ▶ 일 +항공료

라디오 서울 창사 33주년 기념! 아주관광 함께하는

벚꽃일주 7일 \$1599

▶ 3/26, 4/2 **\$1599** +항공료

경북공 한복 입고 관광, 청와대, 롯데 타워 관광, 곡성 중기 기관차 탐승, 덕유산 곤도라 탑승, 한국 민속촌 관광, 산형 한방 체험(공진단 만들기 배급 침뜸 체험), 남해 벚꽃의 산지 관광

일본일주 7일 \$1999 ▶ 3/18, 25 **\$1999** +항공료

인간미 2박 온천호텔 3박, 호텔조식 및 특급이카, 인천 공항에서부터 7기타 동행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 ▶ 1/17, 31, 2/14, 28, 3/7, 21, 4/2, 16 **\$1199** +항공료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엠림,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와트, 톤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라스베가스 2박/트레이드 아일랜드 호텔

아주 단독! 32인승 24년 새 VVIP 버스!

다수의 24년형 새 V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아주 단독! 스피어는 아주와 함께합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한인 컨트랙은 아주 뿐!

아주 단독!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국립공원과 컨트랙으로 아주만 방문합니다!

2개 상품이 하나로 가격 & 일정

미서부 안전일주 7일 \$1469

▶ 월 **\$1469** +항공료

라스베가스 조인

레디슨, 메리엇, 웨라튼 특급호텔 3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일 \$889

▶ 목 **\$889** +항공료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숙박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엔텔롭캐년 4일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라스베가스 조인 ▶ 월 **\$809** +항공료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1339

▶ 월 **\$1339** +항공료

아치스 국립공원, 모뉴먼트밸리, 그랜드캐년, 엔텔롭 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라스베가스

미동부 5일 \$1150

▶ 수, 토 **\$1150** +항공료

뉴욕맨하탄,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울드퀘벡 숙박 \$1700

▶ 수, 토 **\$1700** +항공료

숙박

캐나다동부 6일 \$1399

▶ 목 **\$1399** +항공료

캐나다록키 6일 \$1199

▶ 월 **\$1199** +항공료

명품유럽

전문인술자+현지가이드!
북/서유럽 2인 일체 가이드 전일정/전구간
함께 인술자가 고품격의 니즈를 바로바로
CST 기입 & 보험료도 꼭 확인!

엘리버드 유럽 스페셜 \$700

12월 31일까지 예약시

\$700 할인 전신!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999 ▶ **\$5299** +항공료

\$700 할인 전신! 북유럽 4개국 11일 \$4999 ▶ **\$4299** +항공료

▶ 2025년 5/19, 6/4, 16, 7/15, 8/5, 19

\$200 할인 전신! 발틱일주 3개국 6일 \$2199 ▶ **\$1999** +항공료

▶ 2025년 5/27, 6/12, 24, 7/23, 8/13, 27

서유럽 11일 \$3599

▶ 12/21 **핵심 7일 \$2299** +항공료

▶ 12/25 **\$1999** +항공료

아주투어는 전일정 초특급 호텔! 새로 지어서 생세없는 파리 풀만 호텔 꼭 확인!
런던 1박(힐튼 or 크라운 플라자) | 파리 2박(초특급 Pullman Paris)
스위스 1박(알프스산 바로 앞! 초특급 호텔) | 밀라노 1박(초특급 호텔)
볼로냐 1박(초특급 호텔) | 로마 3박(로마시내안 머큐어 에르미타 호텔)

튀르키예/그리스+산토리니 9일 \$1999

▶ 13일 **\$3999** +항공료

국내선 항공료 포함, 산토리니 섬 숙박, 양복 항공, 특급 호텔과 특식

그리스+산토리니 7일 \$2799

▶ 7일 **\$2799** +항공료

동유럽/발칸 13일 \$3299 +항공료

동유럽일주 7일 \$2099 +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 9일 \$2599 +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 +항공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 +항공료

이집트/요르단 12일 \$3799

▶ 1/9, 2/13, 3/13 **\$3799** +항공료

이집트일주 10일 \$3299

▶ 1/9/25, 2/13 **\$3299** +항공료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호텔! 대피라미드!

중남미

특급 웨라튼 3박, 로스라고스 온천호텔 2박, 전일정 옵션 포함!

코스타리카 6일 \$1149

▶ 1/6, 13, 1/20, 27 **\$1149** +항공료

7일 \$1299

▶ 1/20, 27 **\$1299** +항공료

칸쿤 ▶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시브)

4일 \$1100 +항공료 5일 \$1500 +항공료 6일 \$1900 +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 캘리포니아) ▶ 2인 이상 수시 올인크루시브

\$1050 +항공료 5일 \$1350 +항공료 6일 \$1650 +항공료

쿠바일주 ▶ 2인 이상 수시 6일 \$2999 7일 \$2699 +항공료

남미

모객을 1위 5성급 호텔을 쓰는데 타사와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남미일주 13일 \$4699

▶ 1/6, 13 **\$4699** +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2599

▶ 1/11, 18 **\$2599** +항공료

페루일주 7일 \$2199

▶ 1/6, 13 **\$2199** +항공료

잉카, 마추피추, 나스카

우유니사막+볼리비아 5일 \$2199

▶ 1/6, 13 **\$2199** +항공료

우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2일 \$3999

▶ 1/6, 13 **\$3999** +항공료

파타고니아 15일 \$11900

▶ 12/2, 1/6/25 **\$11900** +항공료

&빙하탐사 크루즈 파타고니아/아르헨티나/칠레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8449

▶ 12/2, 1/6/25 **\$8449** +항공료

하와이/마우이

▶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편 호텔조식, 오후 5시 일주 호텔들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메리엇	해트 레인지 와이키키	웨라튼 와이키키
4일 \$849 +항공료	4일 \$1049 +항공료	4일 \$1149 +항공료	4일 \$1299 +항공료
5일 \$999 +항공료	5일 \$1249 +항공료	5일 \$1349 +항공료	5일 \$1629 +항공료

인도/네팔 14일 \$4899

▶ 2/10/25 **\$4899** +항공료

가이드 동행!

아주 골프투어

원하는 모든 품의 라운딩 아주에서!

하프문베이/하딩팍 3일 \$1200

▶ 수시 **\$1200** +항공료

꿈의 라운딩!

코스타리카 7일 \$1699

▶ 수시 **\$1699** +항공료

파피힐스/하프문 베이 3일 \$1200

▶ 수시 **\$1200** +항공료

아름다운 필드에!

파라다이스 칸쿤 5일 \$1899

▶ 수시 **\$1899** +항공료

한국 SIM카드 스페셜 판매 1달 무제한 통화+데이터+문자 010 번호 부여/서울도착시 개통 요금 \$50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제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1등 US이주투어!

1-800-933-3011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서울 02-522-8686 info@usajutour.com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워,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다이아몬드바,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견제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신태용호·김상식호 '동남아 월드컵' 동반 승리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태용(55)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24 동남아시아 축구 연맹(AFF)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승을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9일(한국시간) 미얀마 양곤의 투운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한 수 아래 상대인 미얀마를 1-0으로 물리쳤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5위, 미얀마는 그보다 한참 순위가 낮은 167위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미쓰비시컵은 동남아 최고 권위의 축구대항전이다. 참가 10개국의 FIFA 랭킹은 거의 다 100~200위 사이로 국제 무대에선 약탈에 속하지만, 엇비슷한 전력을 지닌 팀 들끼리 맞붙다 보니 열기는 유럽축구 선수권대회(유로) 못지않다. 현지 팬들 사이에서 '동남아 월드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한국 팬들에게도 미쓰비시컵은 친숙하다. 스즈키컵(미쓰비시컵의 전신) 시절이던 2018년 박항서(65) 감독이 이끈 베트남이 우승한 이력이 있다. 박 감독이 베트남 지휘봉을 잡고 경쟁력을 끌어 올린 덕분에 동남아 축



동남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미쓰비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미얀마를 물리치고 기뻐하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들. [EPA=연합뉴스]

구계에선 한국인 사령탑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지난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이번이 세 번째 미쓰비시컵 도전이다.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처음으로 나선 2020년 대회는 준우승했고, 2022년 대회에선 준결승에서 박항서의 베트남에

패해 탈락했다. 세 번째 도전인 올해 기필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굳게 다짐한 신태용 감독은 지난날 26일부터 발리에 대표팀을 소집해 집중 훈련을 진행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번 대회는 10개국 5개국씩 두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4강 토너먼트를 치러 우승 팀을 가린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116위), 라오스(186위), 미얀마, 필리핀(149위)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B조에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4강행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조 1위를 해야 A조 최강팀이자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강호 태국(97위)을 준결승에서 피할 수 있어 조별리그부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김상식(48)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또 다른 우승 후보 베트남도 첫 판을 승리로 장식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신국립경기장에서 하혁준(54) 감독이 이끄는 라오스를 4-1로 완파했다. 지난 5월 베트남 사령탑에 오른 김 감독은 이번이 첫 미쓰비시컵 도전이다. 하지만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신태용 못지 않게 비장하다. 부임 후 라오스 전 이전까지 치른 A매치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에 그쳐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일부 현지 언론은 김 감독에 대한 혹평을 내놓기 시작했다.

베트남축구협회는 김상식호가 이번 대회에서 최소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거둬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 감독이 미쓰비시컵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부정적인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골키퍼도 김 감독의 조별리그 최대 승부처는 한국인 사령탑끼리 맞붙을 인도네시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맞대결은 오는 15일 오후 10시 베트남 비엠티리의 푸토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기는 팀은 조 1위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4강 토너먼트에서 까다로운 상대인 A조 최강자 태국을 피할 수 있다.

피주영 기자



신태용

김상식

소방관의 두려움·트라우마 알리고 싶었다

2001년 서울 흥제동 화재 참사를 담은 영화 '소방관'(곽경택 감독)이 박스오피스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8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4일 개봉한 '소방관'은 전날까지 나흘간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를 제치고 흥행 정상에 오르며 누적 관객 50만 명을 기록했다. 신파를 덜고 화재 진압 현장의 체험감을 부각한 게 통했다는 분석이다.

촬영을 마친 뒤 4년이나 묵힌 창고 영화의 반란이란 말도 나온다. '소방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주연 배우 곽도원의 음주 운전(2022), 투자배급사 교체 등 악재가 겹치며 공개가 미뤄져 왔다.

지난달 말 서울 삼정동 카페에서 만난 곽경택(58) 감독은 "관객에게 전달 하고픈 가장 강력한 느낌은 '두려움'"

이라며 "소방관의 시선으로 현장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흥제동 화재는 서울 서부소방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다. 방화복·장갑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영화는 실화 사건에 충실하되, 인물들은 재 창조했다.

곽 감독은 '장사리'를 비롯해 '친구'(2001), '극비수사'(2015), '암수살인'(2018, 각본·제작),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2019) 등 실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만 다섯 편째다. "실화 소재로 법적 분쟁 경험도 다수 해봐 '소방관'은 최대한 고민했다"는 그는 "유족 인터뷰는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했다. 대신 제작사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찾

아가 영화화 동의를 구했다. 소방청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은 연기의 공포를 극대화해 차별화를 꾀했다. 곽 감독은 "기존 화재 영화는 연기보다 불에 치중했다"면서 "연기로 꽉 채워진 와이드샷의 공포감과 카메라가 배우 눈앞까지 다가간 클로즈업을 촬영 기준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안전과 고증을 위해 촬영장엔 비번 소방대원이 상주했다.

매캐한 악취로 가득한 소방서, 민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현실 등 소방관의 고충도 담았다. "순직 동료의 방화복을 못 버리고 자기 사물함에 보관한 소방관의 일화도 실화에서 따왔죠. 원형 탈모가 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거둬 키우기도 합니다. 각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소방구조대원의 입장을 전하고 싶었습



곽경택 감독이 5년만에 연출 복귀한 '소방관'이 주연 배우 곽도원의 음주 운전 논란을 딛고 흥행 1위로 개봉했다. 2001년 흥제동 화재 참사를 옮긴 작품이다. [사진 바이포럼 스튜디오]

니다."

영화는 친형 같은 동료를 잃은 상처에 시달리는 신입 소방관 철웅(주원)과 전원 구조 철칙 속에 현장의 '감'을 중시하는 베테랑 구조반장 진섭(곽도원) 간의 갈등이 주축이다. 곽 감독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음주 장면은 손질했지만, 진섭이 혼자 노래방에 간 장면은 당시

현장 생존자 분이 스스로를 치유한 유일한 방법이였기 때문에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감독은 "개봉 전 소방관 대상 사회 때 실제 현장에 계셨던 분께 '어떻게 보셨냐'고 물었더니 '감동적으로 봤다'고 답해 주셨죠.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아 그저 감사했습니다." 나원정 기자

궁금한 기사 중앙일보 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교 불어/출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let (someone) down; ~를 실망시키다

(Mel and Connie are talking at work ...)

(멜과 카니가 직장에서 얘기한다 ...)

Connie: Can you guess what I saw yesterday?
카니: 내가 어제 뭘 봤는지 알아?
Mel: I don't have a clue. Tell me.
멜: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해봐.
Connie: Will you promise not to tell anyone?
카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래?
Mel: Of course. You've told me many secrets and I've never let you down.
멜: 당연하지. 내가 나한테 비밀을 많이 얘기했지

만 내가 한번도 널 실망시킨 적 없잖아.
Connie: Yes. I know but this secret will blow your mind. It's about our boss David.
카니: 그래. 알지만 이 비밀은 엄청나게 놀랄 거야. 우리 상사 데이비드에 대한 얘기야.
Mel: David? What do you know about him?
멜: 데이비드? 그 사람에 대해 뭘 아는데?
Connie: I saw him downtown yesterday. Are you sure you won't tell anyone?

카니: 어제 다운타운에서 데이비드를 봤거든. 너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안할 거지?
Mel: Don't worry. I always keep my word.
멜: 걱정 마. 난 항상 내 말을 지키잖나.
Connie: I saw him with Julie in the mall yesterday.
카니: 어제 사빙몰에서 줄리랑 함께 있는 걸 봤어.
Mel: What were they doing?
멜: 뭘 하고 있었어?
Connie: He bought her a dress and they were

holding hands.
카니: 줄리한테 옷도 사주고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
Mel: Wow! Are you sure it was David? He's married.
멜: 어머! 데이비드가 맞아? 그 사람은 결혼했어.

기억할만한 표현

▶ not have a clue: 전혀 모르다
"If he doesn't have a clue what to do I'll help him."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개와 원숭이 사이.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 □□□□ (3)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함. 불가능한 일을 무리해서 굳이 하려 함. □□□□ (6)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거나 고름. 남자 주인공의 상대역을 할 여배우를 ~ 중이다 (7)국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 (8)물에 불려 갈아서 콩물을 끓여 여기에 간수를 넣어 엉기게 하여 만들죠 (9)결혼 따위의 기쁜 일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잔치 (10)깊고 깊은 산과 내. ~의 백도라지 (13)날이 매우 날카로운 짧은 칼 (15)원수를 갚음 (16)서로 도우며 함께 삶. 악어와 악어새는 ~ 관계이다 (19)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풀 (21)자기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음 (23)명사 뒤쪽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 (25)가톨릭의 사제 (27)하늘에 두둥실 떠서 바람 따라 흘러가듯 (28)머릿골. 그 집에 서도 아주 ~를 앓고 있답니다 (29)높은 누대와 넓은 집. 크고 좋은 집 (30)내 눈에 볼 대기.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함

세로열쇠

(1)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2)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빛깔 (3)여러 겹의 간접적인 소개로.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시간이 오래지 않아 ~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4)지금 신고 있는 신이 운동화인가요?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인가요? (5)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 제3자가 얻는 이익. 황새와 조개가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았다고 하죠 (7)수직으로 되는 방향. ←가로 (9)매우 적은 액수의 돈. ~한 닢 없다 (11)마음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12)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14)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은 규모의 공업 (17)세상에 태어난 날 (18)사람이 태어났음을 관청에 알리는 일 (20)개와 그물을 모두 잃었음. 이익을 피하다가 도리어 밀천까지 잃음 (21)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 주기 위해 명석처럼 만든 것 (22)산천을 잘 다스려서 가뭄과 홍수 따위의 재해를 미리 막는 일 (24)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26)베나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새 술은 새 ~에 (28)공이 골 안으로 들어감

스도쿠

			3				6	9
			4		6		1	7
9								5
	1		6				5	
7	5			1	2	8	4	6
	6			3		9		
		5	1	2				
8	2				9	5		
	4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6	1	3	5	8	7	4	9
4	3	5	6	9	7	1	2	8
8	7	9	4	2	1	5	6	3
1	2	6	7	3	5	8	9	4
9	4	8	2	1	6	3	5	7
3	5	7	8	4	9	6	1	2
5	8	4	1	7	2	9	3	6
7	1	3	9	6	4	2	8	5
6	9	2	5	8	3	4	7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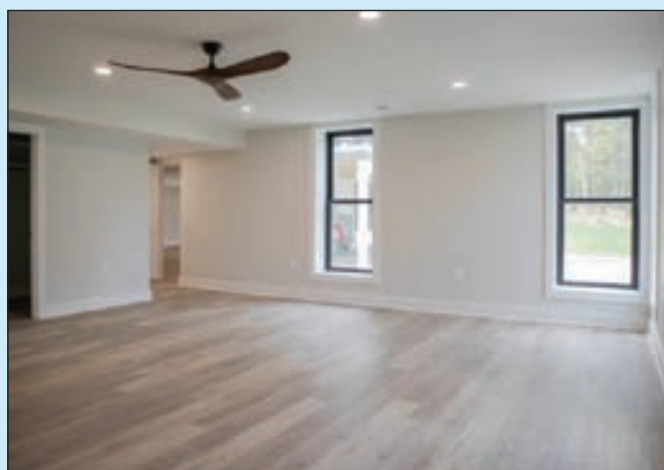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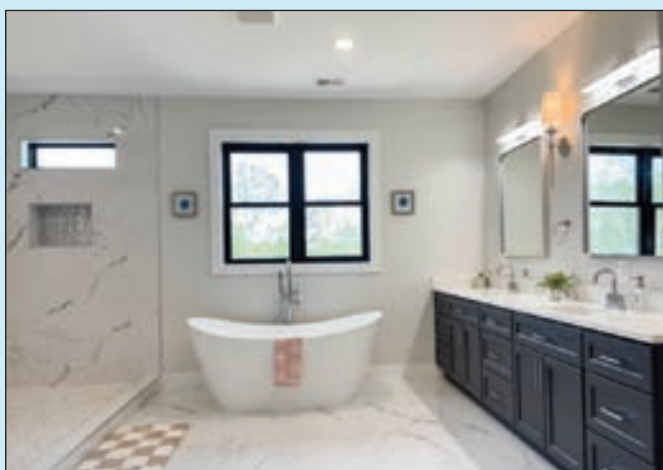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12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WE ARE HIRING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LÖTTE market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우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제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 ~ 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움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션니스트, 액티비티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o.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터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콧 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임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볼톤스빌 MD (엘리콧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방2/부엌/화장실 11/2/택\$1,700 1층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홈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어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방4, 화.2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애난데일 H마트 옆방 1, 인터넷일체, 유포 \$800, 1월 입주, 직장인남자 703-350-1986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펜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사업체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결정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72@gmail.com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케어피플 홀헬스 Billing Coordinator (센터빌)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 수입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

야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h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타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 사무실 (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가능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분 연락 바랍니다!

우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중앙일보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
리/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험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Part time Server 구합니다.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축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이미용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룩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에 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드,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드,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팜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윌,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기타/구인/청소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반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들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앨리컷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웨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저먼타운, 270-1.7mi, Costco 2.5mi, H
Mart 3.8mi
1. \$1800: 싱글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새 리메이크, 출입문 별도, 주차장
방3, 화장실/샤워실, 부엌, 거실, 옷실
2. \$700: 넓은 방1, 잠만 잘분, 여성 환영
Tel 571-379-9333, 703-307-4141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
실 1.5 즉시 입주 가능/깨끗하고 위
치 좋음. \$2,150
301-466-1646/301-529-2175

▶▶SALE 콘도 아파트 2층
방2/마루/전철역/좋은 학교
703-336-3283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 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에난데일 H마트 옆 방 1, 인터넷 일체,
유포 \$800, 1월 입주, 직장인 남자
703-350-1986

Burke H-Mart 10분거리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사무직/편집/디자이너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유포, 취사,인테넷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덕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버튼스빌 엘리카스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443-983-8100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방 렌트. DC 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페어팩스 웨그말 걸어서 5분 카펫 없음, 마루바닥.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및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1150/유틸리티 포함 아침 저녁으로 비어있음 /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 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센터빌타운하우스/화장실/파킹장딸린집/2층 큰방 917-403-4388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방 1/화실/샤워/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 1/웍아웃/샤워/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페어팩스 머릴필드 지역 571-229-7124

▶▶애난데일 콘도 방 1/화 1/식사/라이드 가능/K마트 근처 703-362-5425 703-772-5622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 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 한강위 방 1/화 1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 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애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 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룸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 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싱글룸 지하 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방, 2, 가실, 화장실, 풀킴,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애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전체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 1개 렌트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 1, 화 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센터빌 던킨뒤 오피스콘도 -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화 1/ 큰 오픈 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Message 문자주세요)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렌들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사당,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리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급매 (매매가: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 (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부동산/사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 - 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물,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증인 오토 리퍼어 (VA) 연매상 -\$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 -\$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하고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업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진 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 (3시 이후 전화요망)

골동품 이조기구 전문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 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 / 재용자 / 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어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 / 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팩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 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 (VA) / 443-980-5858 (MD)

▶▶미국 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월/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킹스펙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Luxury Vinyl Tile)
●VCT(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기타 구인 매매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유경험자 칩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알라스카식당 매매 건강상, 아주오래된식당 연매상 \$80만 대지 14,000sf, 가격 문의바람 (907)545-0152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C&J TECH 채용 공고

▶ 회사 정보: 상호: C&J Tech Alabama 주소: 145 Plant 10 Dr, Alexander City, AL 35010 TEL: (256) 392-4291

모집 분야	지원자격	비고
사출 기술 경력자	Plastic 사출 Process Engineer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경력 5년 이상	전 분야 미국내 취업에 걸력 사유가 없으신 분
품질(QC) 경력자	품질 관련 업무 유경험자 사출회사 경력자 우대, 경력 3년이상 ~10년 미만	

▶ 처우 및 지원 절차
- 연봉 수준: 면접 합격자의 경력 사항을 반영하여 회사 내규에 따름
- 복리 후생: 건강보험/생명보험, 401K 지원, 비자/영주권 지원
- 지원/문의: sjshin@cnjtech.com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워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2024 야생 햇 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소비자 가격	중간 마진	심마니 가격
중(M) \$3,500	→ \$1,700	→ \$1,200
대(L) \$4,800	→ \$2,400	→ \$1,400
특대(XL) \$5,800	→ \$2,900	→ \$1,8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모든 통증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Cell. 213.508.3304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대한민국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부동의 1위 일월

이월 **이월**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겨울은 책임지는 일월! ilwoulusa.com 방문하셔서 H10 code로 10% 추가 D.C혜택을 보세요.

가정비 끝판왕! 탄소 스타일리쉬 워셔블 온열매트 (원난방)

탄소 원적외선 펠로우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229 쿤 \$279 \$430 \$540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에 온수매트 싱글 \$325 더블 \$409 \$498 \$615	거실을 온돌처럼 따뜻하게 온돌마루 탄소 카펫 중형 \$350 대형 \$430 \$558 \$692	향균·위생 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179 더블 \$209 \$282 \$332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펠로우원단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09 더블 \$259 \$332 \$415	한국 최초 다목적 온열 담요 블랭킷 \$189 → \$159	가성비 최고의 70W 초절전형 온열매트 \$258 → \$165	편리한 소파용 미니 온열매트 \$148 → \$95

탄소 스타일리쉬 워셔블 온열매트 (원난방) \$215 \$265 싱글 \$139 | 더블 \$169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1/2,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관리한 넓고 밝고 환한집

\$659,900



Sold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Sold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